

2021 회계연도 연차보고서  
**WORLD BANK GROUP**  
**KOREA OFFICE**



**WORLD BANK GROUP**  
KOREA OFFICE

2021 회계연도 연차보고서

**WORLD BANK GROUP KOREA OFFICE**

세계은행그룹 한국사무소

# 목차

요약	04
<b>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혁신과 기술 글로벌 중심지</b>	07
소개	08
주요 사항	08
<b>세계은행 전문분야국(GP) 활동 내용</b>	19
혁신 및 기술	20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녹색성장혁신	29
범분야 지원	43
<b>한국 민간부문의 포스트 코로나 지속가능투자기회 지원</b>	57
국제금융공사	58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65
<b>연락처 및 담당자</b>	69

## 요약

세계은행그룹(WBG) 한국사무소의 2021 회계연도(FY21) 연차보고서는 2020년 7월에서 2021년 6월까지의 세계은행그룹 한국사무소의 활동을 담고 있습니다. 세계은행그룹과 기획재정부간 한국사무소 신탁기금 3기(2022-2024 회계연도)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혁신과 기술 글로벌 중심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한국사무소의 활동은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 한국사무소는 2021 회계연도에 3기 한국사무소의 운영방향을 새롭게 설정하고 2기의 주요 활동을 지속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2021 회계연도에도 코로나 19로 인해 장기간의 재택근무, 출장의 제약, 주요 파트너들과의 화상회의로 국한된 협업 등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한국사무소는 'WBG 코로나19 글로벌 근무관리 지침'과 현지 보건당국의 지침을 준수하여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사무소의 정상적인 운영과 사업 확대를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한국사무소에는 전문분야국들(GPs)과 동아태 지역 부서 등에 소속된 42명의 직원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한국사무소는 세계은행이 개도국 사업을 수행하는데 매우 귀중하게 활용하고 있는 한국의 개발경험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혁신과 기술 글로벌 중심지인 한국사무소의 활동은 혁신과 기술,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녹색성장 혁신의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세계은행의 각 팀은 이 두 가지 분야에서 ITS 부서의 '기술혁신연구소'(T&I Lab)와 오픈러닝캠퍼스(OLC) 부서의 협조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기술혁신연구소(T&I Lab)는 각 팀들이 최신 기술을 이해하고, 이들 기술을 세계은행 프로젝트에 활용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OLC팀은 글로벌 지식협력 신탁기금(Korea Program for Operational Knowledge)을 통해 개도국들이 자국 프로젝트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사업화 지식에 관한 역량개발 교육과정을 제공합니다.

교육국(Education GP) 직원들은 교육과 역량개발을 지원하며, 취약·분쟁·폭력(FCV)팀은 세계은행의 분쟁 취약국 내 활동을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제금융공사(IFC)와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직원들은 한국사무소 내에서 개도국에 대한 한국의 투자를 모집합니다.

**2021 회계연도에는 한국사무소의 기술 및 혁신 프로그램을 잘 보여주는 두 개의 대표적인 행사인 '한국-국제개발협회(IDA) 혁신 및 디지털 기술 워크숍'과 '2020 글로벌 혁신성장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본 행사들은 한국의 성과와 우수 사례를 개도국들에게 소개하고 세계은행이 이러한 사례들을 어떻게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습니다. 코로나19 안전조치의 영향으로, 두 행사 모두 최신 화상회의 기술을 활용한 하이브리드 형태로 개최되었습니다.

세계은행은 2020년 11월, 기획재정부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 세계의 한국-IDA 혁신 및 디지털 기술 워크숍**을 공동 개최하였습니다. 윤태식 기획재정부 차관보, 회원국 대사 등을 비롯해 80명이 현장에서, 빅토리아 콰과(Victoria Kwakwa) 세계은행 동아시아 태평양지역 부총재(Vice President for EAP), 아키히코 니시오(Akihiko Nishio) 세계은행 개발금융 부총재(Vice President for Development Finance)를 비롯한 250여 명이 온라인으로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개발의 중요한 진전에 장애가 되고 있는 글로벌 팬데믹을 극복함에 있어 혁신과 디지털 기술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세계은행은 2020년 12월 **2020 글로벌혁신성장포럼(GIGF)**도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본 포럼은 디지털 혁신의 가속화와 미래 세대를 위한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환경 보전의 필요성을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강화된 보건 정책으로 인해 포럼은 주로 온라인으로 진행되었고, 국내 연사와 패널들의 발표 내용은 스튜디오에서 생중계되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빅토리아 콰과 세계은행 동아시아태평양지역 부총재, 빈튼 G. 서프 구글 부사장, 박수경 대통령 과학기술보좌관이 개막식을 빛내 주었습니다. 세계은행과 한국 파트너들 간의 파트너십과 주요 목표를 조명하는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웹사이트가 개설되어 현재까지 10만 명 이상이 방문했습니다.

**“혁신과 기술을 개발과 연결한 한국의 경험”**이라는 제목의 대표 보고서가 한국사무소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협업을 통해 작성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한국이 어떻게 혁신과 기술을 활용하여 지속적 성장을 달성하고 중진국에서 고소득국으로 성공적인 발전을 하였는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보고서는 한국의 경제성장에 대한 세계은행의 이해를 증진할 것입니다.

2021 회계연도에 한국사무소, 보건국(GP),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이 협업하는 **코로나 19 대비와 대응을 위한 파트너십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본 파트너십은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의 코로나19 관리 사례를 연구하고, 개도국들이 국제적 우수관행을 적용해 향후 팬데믹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 및 지식교류를 위한 플랫폼을 조성할 것입니다.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혁신과 기술 글로벌 중심지

소개

주요사항

## 소개

세계은행그룹 한국사무소는 설립 이후로 세계은행의 개도국 임무에 가장 도움이 되는 한국의 개발 경험에 더욱더 집중해 왔습니다. 한국 정부와의 파트너십 3기를 맞이한 지금, 한국사무소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혁신과 기술 글로벌 중심지라는 가치 하에 그 활동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두 가지의 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축은 혁신과 기술로,** 금융업계의 사이버보안 태세 등 사이버 보안, 혁신적 정책, 데이터 거버넌스, 디지털 금융 진흥 분야에서의 개도국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디지털 기술은 IDA19와 다가오는 IDA20에서 개도국을 위한 핵심적인 포괄 주제입니다.

**두 번째 축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녹색성장 혁신으로,** 기후변화, 해양 플라스틱, 재생-스마트-고효율 녹색 에너지 전환, 스마트 시티 등의 프로그램 등을 포괄합니다. 한국사무소는 기술과 혁신이 한국의 청정, 녹색, 청색경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는 쌍방향 e-북을 작년 출간했습니다. 또한 개도국들의 개발과제를 파악하고 혁신적인 기술, 운영 면에서의 해법을 이행하기 위해 한국녹색성장신탁기금(KGGTF)과 협업하고 있습니다.

## 주요 사항

### 포스트 코로나 세계의 한-IDA 혁신 및 디지털 기술 워크숍



세계은행그룹과 기획재정부는 개도국을 위한 디지털 경제의 희망과 과제, 그리고 코로나 이후 시대 국제 기술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논의하는 한-IDA 워크숍을 공동으로 개최했습니다. 빅토리아 과과 세계은행 동아시아태평양지역국 부총재와 아키히코 니시오 세계은행 개발금융 부총재가 화상으로 개최사를 전했고 윤태식 기획재정부 차관보의 축사는 현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파라과이, 콜롬비아, 온두라스 등 각국의 대사들과 한국의 디지털 기술 및 혁신 전문가들이 워크숍에 참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한국판 뉴딜(Korean New Deal), IDA 수혜국들이 직면한 혁신과 개발의 도전과제들, 한국과 세계은행그룹 간 진행 중이거나 향후 진행될 공동 프로젝트들에 관하여 논의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전 세계 개발 진전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는 데 혁신과 디지털 기술이 갖는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도 조명했습니다.

## 2020 글로벌 혁신성장포럼

2019년 출범한 GIGF는 전 세계 리더들이 모여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협력하는 포럼입니다. 세계은행그룹과 기획재정부가 공동주최한 이번 제2회 GIGF는 서울에서 화상으로 개최되어 국내외 청중들에게 생중계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글로벌 혁신 트렌드의 중대한 변화들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디지털 및 녹색혁신의 해법을 통한 지속가능성장 이룩할 방법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빅토리아 과과 세계은행 동아시아태평양지역국 부총재가 개회사를 하였습니다. 정부, 연구소, 그리고 구글, 플러그 앤 플레이(Plug and Play)등 기업 전문가들이 기조연설자와 패널로 참여했습니다. 또한 최근 발표된 개발을 위한 혁신적 기술(Disruptive Technologies for Development (DT4D)) 2.0 과제의 일환으로 한국의 기술 스타트업과 세계은행 및 외부 전문가 패널들이 소통하는 세션도 마련되었습니다.



## 한국사무소 혁신 및 기술 웹 세미나 시리즈

한국사무소는 세계은행의 각 전문분야국(GP)들과 함께 개발을 위한 혁신 및 기술 웹 세미나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웹 세미나는 내외부 청중을 위해 생중계되고 녹화본은 세계은행 OLC 웹사이트에서 누구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18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총 16회의 웹 세미나가 개최되었으며, 이 중 네 번이 2021 회계연도에 개최되었습니다.

### 코로나19 시대 고등교육의 도전과제 극복: 한국의 초기 교훈 (2020년 7월 22일)

한국사무소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아프리카 과학기술 파트너십 (PASET), 교육국과 협력하여 한국의 코로나19 위기 기간 고등교육체계 지원 경험과 사하라 이남 지역 아프리카(SSA) 국가들을 위한 시사점에 대하여 발표했습니다. 광주교육대학교, 한국개발연구원(KDI), KERIS의 전문가들은 대학 인프라 지원, 학습 지속성 보장을 위한 학생과 교육기관 대상의 새로운 정책과 규제에 대해서 토의했습니다.

### 한국의 전력 부문 디지털화: 코로나 이후의 뉴노멀 (2020년 9월 9일)

한국사무소는 에너지국(Energy and Extractives GP)과 협력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 전력 인프라의 디지털화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드론 기반 시설물 점검, 지능형 검침 인프라(AMI), 계통 복원력 강화 등 한국전력공사(KEPCO)가 도전과제들의 해결을 위해 이행해 온 디지털 혁신 도구들을 소개하였습니다.

## 주요 사항

### 포용적 디지털 금융을 위한 오픈 बैं킹: 코로나 시대 글로벌 트렌드와 한국의 경험 (2020년 12월 16일)

한국사무소, 금융·경쟁력·혁신국(Finance, Competitiveness and Innovation GP) 산하의 서울금융혁신센터 (Seoul Center for Finance and Innovation),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한국의 오픈 बैं킹 체계만의 특별한 면면을 살펴보기 위해 본 세미나를 공동 주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여러 국가가 도입한 범위, 정책, 기술 체계들의 주요한 차이점을 조명했습니다. 한국 핀테크 기업들이 코로나 시대에 자신들의 서비스에 오픈 बैं킹을 적용한 경험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습니다.

### 한국의 해상풍력 (2021년 5월 13일)

한국사무소와 에너지국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과 공동으로 주최한 본 웹 세미나에서 한국의 해상풍력 정책과 기술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2017년 “재생에너지 3020”비전, 2019년 “2040 에너지 전환” 정책, 2020년 “2050 탄소중립”비전을 발표하며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에 우선순위를 두어 왔습니다. 한국은 “재생에너지 3020”비전 하에 2030년까지 전체 전력생산 중 재생에너지 비중 2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KETEP과 한국 민간기업의 전문가들이 한국의 해상풍력 정책 및 기술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표 1. 한국사무소의 혁신 및 기술 웹 세미나 주제

번호	웹 세미나 제목	날짜	전문분야국(GP)/ 프로그램	참여 한국 기관 및 한국 사례
1	코로나19 시대 고등교육 과제의 도약: 한국의 초기 교훈	2020년 7월 22일	교육	KERIS, KDI, PASET, 광주교육대학교
2	한국의 전력 부문 디지털화: 코로나 이후의 뉴노멀	2020년 9월 9일	에너지	KEPCO, 아주대학교
3	포용적 디지털 금융을 위한 오픈 बैं킹: 코로나 시대 글로벌 트렌드와 한국의 경험	2020년 12월 16일	금융·경쟁력·혁신	한국핀테크지원센터, 금융결제원, 한국금융솔루션
4	한국의 해상풍력	2021년 5월 13일	에너지	KETEP, KIER, 두산중공업, 현대스틸산업, 삼강엠앤티

참고: KERIS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Korea Education and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PASET (아프리카 과학기술 파트너십) =Partnership for Skills in Applied Sciences, Engineering and Technology; KDI = (한국개발연구원) Korea Development Institute; KEPCO = (한국전력공사)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KETEP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Korea Institute of Energy Technology Evaluation Planning; KIER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Korea Institute of Energy Research

## 지식 산출물

### 혁신 및 기술 사례연구 시리즈

한국사무소는 여러 GP들과 협업을 통해 한국의 혁신 및 기술을 활용한 발전 경험을 문서화하기 위해 본 사례연구 (note) 시리즈를 만들고 있습니다. 짧은 사례연구로 이루어진 본 시리즈는 한국의 경험을 요약하여 실무자와 정책결정자들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한국사무소는 한국이 중진국에서 고소득국으로 발전하고 혁신 및 기술의 글로벌 리더로 도약한 여정을 담은 보고서도 작성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총 다섯 건의 사례연구가 작성되었고, 이 중 2021 회계연도에 작성된 네 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디지털 은행: 한국의 교훈 (2021 회계연도)

본 사례연구는 한국의 디지털 은행 경험을 평가하고 은행 및 핀테크 업계 정책결정자와 시장 참여자들에게 도움이 될 교훈을 공유합니다. 한국 정부가 새로 발표한 디지털 은행 정책에 따라 K뱅크와 카카오뱅크가 2017년 성공적으로 출범하여 편리하고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며 한국의 은행업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첫 3년이 지난 2020년 7월 기준, 두 은행들은 상반된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서로 다른 도전 과제, 자본조달과 마케팅의 성패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경쟁이 심화되는 환경에서, 디지털 은행들은 더욱 전략적, 혁신적으로 변화해야 성공을 지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대한민국의 코로나19 대비와 대응 (2021 회계연도)

본 사례연구는 한국의 코로나19 대비 및 대응을 분석하여, 한국의 데이터 기반 혁신적 접근과 전략적 명확성(검사와 확진자 동선추적 중심)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한국은 과거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위기를 거치며 갖춰진 역량 및 법과 규제 개혁으로 대비가 보다 잘 되어 있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KCDC)의 정책, 연구, 훈련 강화를 위한 투자와 공중보건 조치들에 대한 적절한 재원이 주효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규모 검사, 확진자의 철저한 격리, 광범위한 동선 추적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 동참으로 한국은 엄격한 봉쇄(락다운) 조치 없이 코로나19를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민관의 공고한 협조와 이미 마련된 승인 절차 덕에 검사키트 개발을 위한 의사결정과 행동이 신속히 이루어졌고, 공공/민간 연구시설에 보급되어 한국은 비교적 성공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 주요 사항

### 한국의 효과적인 지리공간정보관리의 힘: 개발과 적용 (2021 회계연도)

지리공간정보기술은 여러 국가의 경제 변혁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전자정부 추진과 함께 구축된 한국의 국가공간정보인프라(NSDI)는 2019년 한국의 지리정보데이터 인프라가 세계 10위를 기록한 점을 고려할 때 더욱 놀랍습니다. 2013년 열린 정부 정책 수립 이후, 민간과 공공 부문을 비롯한 다양한 최종사용자가 데이터를 사용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시장은 급속히 성장해 2018년 매출 약 70억 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본 사례연구는 지리공간정보의 개념과 기술적 진화를 전반적으로 설명한 후, NSDI 개발 계획 및 전략, 한국 시장에 미친 경제적 영향, 두 가지 지리공간정보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설명합니다. 본 연구는 NSDI의 성공적인 발전과 적용에 기여한 요인은 정보와 혁신이라는 결론으로 마무리됩니다.

### 5G 시대의 개막: 한국의 교훈 (2021 회계연도)

본 사례연구는 한국의 5G 여정을 교훈으로 다루며 생태계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전략과 활동에 초점을 맞춥니다. 2019년 4월,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로 스마트폰 기반의 B2C(Business-to-Consumer) 5G 서비스를 상용화했습니다. 2년 후, 한국의 5G 가입자 수는 1천3백만 명을 넘어 전체 휴대폰 가입자의 20%를 차지하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5G는 시장면에서나 기술면에서나 아직 개발 초기 단계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국내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변혁을 일으킬 5G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포괄적 국가전략 수립의 초기 성공을 입증하였습니다. 정부는 이 차세대 모바일 네트워크 실행 과정에서 전략의 명확성을 제공하고 포용적인 접근 방법을 도입하였습니다.

## 부상하는 신기술 큐레이션 시리즈

부상하는 신기술 큐레이션 시리즈는 블록체인, AI, 엣지 컴퓨팅, 사물인터넷(IoT), 5G 등 새로운 기술 탐구와 도입에 관한 한국의 경험과 교훈을 정리하여 공유합니다. 2021년 4월부터 두 건의 사례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 한국의 블록체인 생태계 (2021 회계연도)

부상하는 신기술 큐레이션 시리즈의 첫 번째 사례연구입니다. 블록체인 기술과 개발 과제 해결을 위한 잠재력, 한국의 블록체인 생태계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다양한 사용자, 산업, 분야, 국가 간 거래 데이터와 정보의 안전하고 투명한 협업과 교류를 촉진하는 분산화된 기술입니다.

## 개발에 도움을 주는 엠티 컴퓨팅 활용 기술 (2021 회계연도)

본 사례연구는 엠티 컴퓨팅과 개발 과제 해결을 위한 잠재력, 한국의 주요 경험을 담고 있습니다. 엠티 컴퓨팅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지연시간을 줄이며 데이터센터에서 멀리 떨어진 연산 집약적 애플리케이션에 상황인식을 제공하여, 자율주행, 증강 및 가상현실 등 기술의 실현 가능성을 높입니다.

## 한국-WBG 코로나19 대비와 대응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을 빈곤으로 몰아넣으며 경기 침체를 야기하는 심각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동아시아태평양(EAP) 지역은 코로나19를 먼저 겪었지만, 신속하게 대응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국경 폐쇄, 봉쇄, 코로나 시대에 맞는 행동양식 실시, 검사, 추적, 치료, 격리, 방역에 이르기까지 많은 대응 전략들이 사용되었습니다. 백신 개발이 유례없는 속도로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었고, 최근 동아태 지역은 백신 보급을 시작하였습니다.

동아태 지역 일부 국가들은 코로나 팬데믹과 이로 인한 인력개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은행의 재정지원과 정책자문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코로나19 대비 및 대응에 대한 유용한 경험과 교훈들이 도출되어 동아태 지역뿐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과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계은행과 대한민국의 지식 파트너십은 이런 경험들을 문서화하고 공유하여 현재, 그리고 향후 도래할 수 있는 팬데믹 대비 및 대응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동아태 지역은 팬데믹으로 야기된 경제사회적 문제들을 완화하고 혁신과 기후친화적 접근을 통해 더 강력한 재건을 이룰 수 있는 탄력적 회복에 집중해 왔습니다. 빠르게 진화하는 팬데믹과 싸우기 위해 성공적인 정책 도구들이 개발되었지만 대비와 대응을 위한 조치들은 오늘날까지 계속 변화하고 있어, 코로나19 대비와 대응의 우수사례 파악에 대한 전 세계적인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식 공유를 장려하기 위해 세계은행그룹은 대한민국 기획재정부와 함께 동아태 지역의 자문 서비스 및 분석(ASA) 지식교류 프로그램을 지원해 왔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i) 지식 창출, (ii) 지식 전파, (iii) 지식교류 플랫폼 개발이라는 세 개의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동아태 5개국(피지, 말레이시아, 몽골, 베트남, 대한민국)이 자국의 대비 및 대응 교훈을 공유할 것입니다. 각 국가는 확진자 동선추적, 봉쇄조치, 백신 등의 주제로 심층 사례연구, 지침, 정책 노트를 작성할 것입니다. 공람 데이터 및 사례연구와 정책 노트를 비롯한 자료들은 보건 의료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본 프로젝트의 목표 중 하나는 각 국가들이 어떻게 ICT 기술을 적용하여 동선추적과 백신 보급 등 확산예방 활동들의 효과를 개선하였는지 조명하는 것으로, 이는 이제 현대 공중보건 서비스 제공에 영구적 요소가 될 가능성이 큼니다. 글로벌 중심지를 목표로 하는 한국사무소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성공적이고 실용적인 팬데믹 대처방안을 알아보고 이를 다른 지역과 공유하기를 기대합니다.

## 주요 사항

### 한국-WBG 파트너십 강화

세계은행그룹 한국사무소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한국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지원하여 이들의 전문성과 역량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한국사무소는 한국의 주요 공공기관, 민간부문, 학계, 시민사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사무소는 분기 뉴스레터를 새로 발간하기 시작했고, 대외 웹사이트에 소식을 자주 업데이트하며 언론 보도를 통해 세계은행과 한국의 파트너십을 대중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 인사이트 웨비나 100: 포스트 코로나 세계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2020년 7월 7일)



D.CAMP가 주최한 인사이트 웨비나(Insight Webinar)는 코로나 19로 인한 산업의 변화와 스타트업들의 사례를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세계은행그룹 한국사무소 소훈섭 소장(Special Representative/Country Manager)은 “포스트 코로나 세계에서의 개발을 위한 혁신”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세계 경제, 그리고 개발을 위한 혁신과 기술에 대한 세계은행그룹의 지원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 2020 코리아 헤럴드 금융포럼 (2020년 11월 4일)

**The Korea Herald**  
**FY21 Innovation and Technology Programs**

**I. EXPLORATION AND KNOWLEDGE SHARING**

- INNOVATIVE KOREA REPORT
- INNOVATION & TECHNOLOGY WEBINAR SERIES
  - Data Platforms for Smart Cities
  - Building-up Cybersecurity Resilience
  - Solid Waste Management
- INNOVATION & TECHNOLOGY NOTE SERIES
  - Korea's Energy Storage Systems Development
  - Digital Banks in Korea
- MONTHLY BRIEFS/ QUARTERLY DEEP DIVES
  - Data for Development
  - 5G and IoT
- KNOWLEDGE EXCHANGE EVENTS
  - IDA-Korea Technology Workshop (Nov. 2020)
  - Global Innovative Growth Forum (Dec. 2020)

**II. SUPPORT TO OPERATIONS**

- CURATION OF KEY TECHNOLOGIES
  - Technology ebook
- OPERATIONAL SUPPORT TO BANK PROJECTS AND TEAMS
  - Digital Technology for Development (DT4D)
  - Explore additional opportunities for operational support

**III. SECTORAL TRANSFORMATION**

- SUPPORT TO COUNTRY MANAGEMENT UNITS OR GLOBAL PRACTICES ON DISRUPTIVE TECHNOLOGY ASSESSMENT AND STRATEGIC PLANNING
  - Framework for assessing disruptive technologies
  - Initiate disruptive technologies assessment

코리아헤럴드(Korea Herald)는 “개혁의 길에 선 한국 경제”라는 테마로 첫 번째 금융포럼을 열었습니다. 정책결정자들과 경제학자들이 참여하여 금융권의 디지털 대전환, 한국의 경제 협력 강화 역량을 비롯, 코로나 이후 한국 경제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소훈섭 세계은행그룹 한국사무소장은 코로나19와 국제개발에 대한 세계은행의 시각을 공유했습니다. 소훈섭 소장은 코로나19가 세계경제와 금융계에 미친 영향, 팬데믹이 가속화시킨 기술트렌드 등에 대해 발표하며, 포스트 코로나 세계에서는 포용성, 탄력성, 지속가능성이 더 필요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 2020 글로벌 코리아 지속가능개발목표를 위한 과학기술혁신 (2020년 12월 10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약 150개 정부 및 공공기관의 후원으로 2020 글로벌 코리아 컨벤션을 주최했습니다. 이번 컨벤션은 개별 기관들이 추진해 온 국제협력 사업들의 분절적이고 비교적 일관성 없는 각개전투형 접근법을 해소하고 “팀 코리아”로서의 공유와 협력의 플랫폼을 만들어 모든 공공기관들이 연대와 협력을 통한 공동 대응이 목적입니다. 소훈섭 세계은행그룹 한국사무소장은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지속가능개발목표(SDG) 달성을 위한 과학, 혁신기술, 녹색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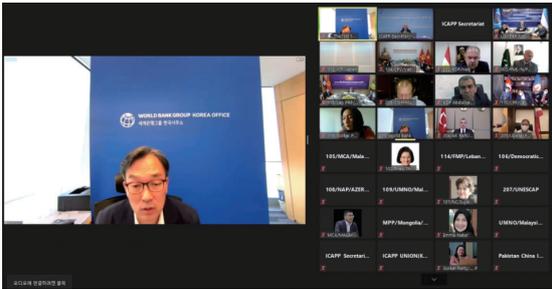
### 2020 글로벌 ICT 리더십 온라인 포럼 (2020년 12월 11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세르비아, 캄보디아, 네팔,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의 고위급 정부 관료들을 초청해 2020년 글로벌 ICT 리더십 온라인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소훈섭 세계은행그룹 한국사무소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ICT를 활용한 지속가능한 사회경제적 개발 전략을 주제로 한 제2세션의 좌장을 맡았습니다.



## 주요 사항

### 아시아정당국제회의의 제2회 코로나19 팬데믹 특별회의 (2021년 5월 25일)



아시아정당국제회의(ICAPP) 사무국은 2021년 5월 25일 “제2회 코로나19 팬데믹 특별 화상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19개국 24개 정당 대표들이 모인 이번 회의의 기초연설은 세계보건기구와 세계은행그룹에서 준비했습니다. 소훈섭 세계은행그룹 한국사무소장은 기초연설을 통해 팬데믹의 경제적 영향과 포용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뉴스레터 분기별 발간

세계은행그룹 한국사무소는 사무소의 새로운 비전에 걸맞도록 뉴스레터의 형식을 새로 디자인하여 분기별로 발간합니다.



#### A New Phase of the World Bank Group Korea Office

In December 2020, the [World Bank Group \(WBG\) Korea office](#) reached an agreement with the Republic of Korea's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MOEF) on phase three (fiscal years 2022 to 2024) of the office. With financial support from MOEF, the new phase will focus on establishing the office as a global center for innovation and technolog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e programs in the WBG Korea office build on two major pillars: crosscutting innovation and technology and green growth innovation.

Disruptive digital innovations are at the core of the first pillar, including in areas such as data governance, digital finance, digital skills, innovation promotion policies, and cybersecurity. A newly established East Asia and Pacific (EAP) Regional Technology and Innovation Lab will be established to support the experimentation and scale-up of innovative technology-enabled solutions in World Bank projects. The second pillar on green growth innovation will build on existing programs by supporting engagements on climate change, marine plastics, green energy transition, and smart, green sustainable cities.



#### Korea-World Bank Group Partnership on Pandemic Preparedness and Response

While initial policy responses helped some countries mitigate the impact of the COVID-19 outbreak, preparedness and response measures need to evolve and adapt to the quickly changing nature of the virus.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a strong and growing demand for learning the best practices in pandemic preparedness and response to achieve a resilient recovery. To facilitate such knowledge sharing in the East Asia and Pacific (EAP) region, the World Bank Group (WBG)'s Korea Office and the Health, Nutrition & Population Global Practice, in partnership with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of Korea (MOEF), are supporting a knowledge exchange program known as the Korea-WBG Partnership on Pandemic Preparedness and Response.

## 대외 홍보

### 빅토리아 과과 동아시아태평양지역국 부총재, 코리아헤럴드와 인터뷰 (2020년 8월 20일)

빅토리아 과과 동아시아지역국 부총재가 한국의 “그린 뉴딜”을 연속 보도하는 코리아 헤럴드와 독점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과과 부총재는 세계은행그룹의 지속가능성장에 대한 의지는 변함이 없으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관련 경제, 정치, 사회심리학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동아시아 지역의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과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상당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고려할 때, 이 지역은 지구온난화에 대한 적응과 저감 조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아키히코 니시오 개발금융 부총재, 코리아헤럴드와 인터뷰 (2020년 11월 5일)

아키히코 니시오 개발금융 부총재는 포스트 코로나 국제개발에서 한국이 혁신의 모델로 부상할 잠재력에 대해 코리아헤럴드와 독점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니시오 부총재는 한국은 자국이 가진 전문성, 경험, 지식을 활용해야 국제개발에서 혁신과 기술의 허브로 도약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IDA를 비롯한 국제기구들이 기술의 불평등 감소를 중시함에 따라, 한국이 앞으로 더 중심적인 역할을 맡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이유와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하는 의미로, 세계은행그룹 한국사무소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혁신과 기술 글로벌 중심지라는 기치 하에 그 기반을 닦고 있습니다.

### 쏘카 박재욱 대표, 세계은행그룹 한국사무소와 인터뷰 (2021년 4월)

2020년에 한국의 12번째 유니콘 기업이 된 스타트업 쏘카(SoCar Inc.)는 앱 기반의 차량공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쏘카의 박재욱 대표는 쏘카와 같은 스마트 모빌리티 기업들이 도로의 차량 대수를 줄여 교통체증과 주차공간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을 모색하는 개도국에서는 산업의 연착륙을 지원하고 창업에 유리한 생태계를 제공하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주요 사항

### 김종갑 본투글로벌센터장, 세계은행그룹 한국사무소와 인터뷰 (2021년 7월)



본투글로벌센터(Born2Global)는 스타트업의 개도국을 비롯한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기업 인큐베이터이자 지원 기관입니다. 김종갑 본투글로벌센터장은 인터뷰를 통해 개도국 스타트업에 도움이 될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경험과 교훈을 공유했습니다. 또한 본투글로벌센터의 한국과 개도국의 혁신기술 스타트업 간의 합작회사 조성 사업도 소개하였습니다. 그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스타트업은 사업모델을 지속적으로 진화시켜 현재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반영하고 모든 분야로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세계은행 전문분야국(GP) 활동 내용

혁신 및 기술(Innovation and Technology)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녹색성장혁신  
(Green Growth Innov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범분야 지원(Crosscutting Support)

## 혁신 및 기술

### 디지털 개발

세계은행 디지털개발(Digital Development, DD GP)국은 각국 정부들과 협업하여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전환, 데이터 공유, 디지털 역량 등의 기반 구축에 주력하여 신뢰할 수 있고 포용력 있는 디지털 경제를 이룩하고자 노력합니다. 디지털 기술은 사람 간, 지역 간 연결성을 강화하여 경제성장의 획기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개발을 촉진합니다. 디지털 전환이 코로나19 팬데믹 대응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에 많은 기여를 한 점을 바탕으로, 디지털개발국은 계속해서 개도국의 디지털 격차 완화와 데이터 기반의 포용적 디지털 경제 구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디지털 개발국, 세계은행그룹 한국사무소 합류

디지털개발국(DD)국은 2021 회계연도에 세계은행그룹 한국사무소에 합류했습니다. 디지털 개발에 관한 한국과의 파트너십 진화는 디지털 의제에 대한 한국 지도층의 의지, 그리고 한국의 세계은행 디지털개발 파트너십(DDP) 합류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DDP는 파트너 국가들과 민간부문의 우수사례를 활용하며 현재 한국을 포함한 13 개 회원국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디지털 개발의 선두에 서 있으며, 디지털개발국은 한국의 관행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2021세계개발보고서: 더 나은 삶을 위한 데이터』에 소개된 의제들을 실현할 계획입니다. 디지털개발국의 다양한 관련 정책, 규제, 전략들과 데이터 경제의 리더가 되고자 하는 한국의 강력한 의지를 결합하면, 파트너 국가들은 여기에서 많은 도움을 얻고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 한국 파트너와의 새로운 파트너십

디지털개발국은 여러 부처, 관계기관, 학계와 장기 전략 파트너십을 구축해 왔습니다. 파트너들로는 기획재정부(MOEF), 과학기술정보통신부(MSIT), 행정안전부(MOIS), 한국정보화진흥원(NIA),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있습니다. 디지털개발국은 한국의 파트너들과 함께 한국과 개도국을 연결하여 한국의 앞선 데이터 생태계의 기술과 역량을 전수하고자 합니다. 디지털개발국은 서울, 인천, 대전, 제주를 포함한 국내 여러 지역에서 파트너들과 협업계획을 세워 왔습니다. 또한 공고한 파트너십과 교류의 기반을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KDCC), 본투클로벌센터, 서울시, 삼성, 세계스마트시티기구(WeGo), 시티넷(CityNet), 이클레이(ICLEI),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기관까지 확장하였습니다.

### 파트너 행사 참여

디지털개발국은 한국 정부기관 및 한국 내 국제기구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에 파트너들의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선임디지털개발담당관(Senior Digital Development Specialist)이자 태스크팀리더(TTL)

인 자키 코리(Zaki B. Khoury) 박사는 회복력 있고 지속 가능한 포용적인 비상대응과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위해 지역 차원에서 공공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방안을 논의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공공 거버넌스 강화> 포럼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본 포럼은 유엔 경제사회국(UN DESA)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KRILA)이 2021년 7월 7일에 공동 주최하였습니다. 디지털개발국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초대로 7월 19일 정보보안의 날 10주년 기념 정보보안 국제회의에도 참여하였습니다. 마크 윌리엄스 디지털개발국 동아태지역 부국장 (Mr. Mark Williams, DD Practice Manager in EAP)은 개발 과정에서 사이버보안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세계은행의 전략과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구축을 위한 최근의 노력을 소개하였습니다.

### 한국 디지털개발 프로그램 (KoDi)



디지털개발국은 2021년 7월 자키 코리 박사를 태스크팀 리더로 하는 한국디지털전환프로그램(P177256)을 출범시켰습니다. 프로그램의 목적은 주요 한국 파트너와의 협업을 통해 개도국들이 디지털 기회를 활용하고 위험을 관리하여 포용적인 데이터 기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세계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효과적인 국가 데이터 생태계 구축, 디지털 신뢰도 강화, 디지털과 녹색(green)의 연관성 강화입니다. 또한 한국 파트너와의 협업을 통해 지식산출물, 다양한 측정도구, 역량개발 프로그램, 정책대화, 기술지원을 수요국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 활동들(2022-2024 회계연도)은 1백만 달러의 초기 지원을 받았고, 그 후 한국녹색성장신탁기금(KGGTF)을 비롯한 여러 한국 기관이 추가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세계은행의 최근 블로그 게시물에는 [한국의 경험을 적용하여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KoDi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 금융, 경쟁력, 혁신

서울금융혁신센터는 동아태 지역 개도국의 금융 및 민간 부문의 발전을 지원합니다. FCI(금융 · 경쟁력 · 혁신)국이 관리하는 본 파트너십은 WBG 한국사무소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서울금융혁신센터는 2011년 문을 연 이후 기술 지원과 역량 강화에 대한 개도국의 수요를 지원하고 한국의 풍부한 금융 분야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함으로써 금융 부문의 발전을 도모해 왔습니다. 지난 9년간의 좋은 결과와 성과를 바탕으로, 서울금융혁신센터 파트너십 제3기가

## 혁신 및 기술

2020년 7월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기획재정부가 지원을 약속한 신탁기금의 규모는 누적 3천만 달러에 도달했습니다.

본 파트너십의 목표는 동아태 지역 금융 및 민간 부문을 강화하며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파트너십이 연장됨으로써 세계은행 FCI국은 계속해서 개도국이 40여 개 한국 금융 및 민간부문 기관 파트너들의 전문성을 벤치마킹하여 꼭 필요한 법과 규제를 개정하고, 맞춤형 솔루션을 개발하며, 제도적 역량을 개선하도록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아니라, 파트너십의 범위도 확대되어 개도국들의 수요 증가, 공여국의 관심, FCI국의 목표, 세계은행 한국사무소의 미래 비전과 더 잘 부합하는 혁신 및 경쟁력 관련 테마들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파트너십의 범위 확대로 FCI국은 개도국들의 더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게 되고, 보다 많은 관련 한국 기관들과의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지식 공유 기회도 늘릴 전망입니다.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파트너십 프로그램 (2020년 8월 19일)

사미어 고얄 서울금융혁신센터장(Sameer Goyal, program manager for the Seoul Center)이 금융감독원의 금융감독파트너십프로그램(FSPP)에서 디지털금융과 금융포용 사례에 대해 강연을 했습니다. FSPP는 개도국 금융감독 담당자들을 위한 단기 지식공유 훈련프로그램으로, 지역의 금융시장 개발과 성장 촉진을 도모하며 한국 정부의 신남방, 신북방 정책과 궤를 같이 합니다. 금감원은 KDI 스쿨에서 연구 중인 개도국 금융감독관들을 대상으로 2020년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 서울금융혁신센터 “디지털 은행: 한국에서 얻은 교훈” 사례연구 발간 (2020년 10월 1일)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기술이 금융서비스를 변화시킴에 따라 디지털 은행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새로운 디지털 은행 정책 하에, K뱅크와 카카오뱅크가 2017년 성공적으로 출범하여 편리하고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출시하고 한국 은행업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사업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이 은행들은 자본 확충을 모색하였으나 은행 소유권에 대한 새로운 규제 문제에 부딪혔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과 규제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문을 연지 3년이 지난 2020년 7월 기준 두 은행의 성과는 대조적인 모습인데, 자본 확충과 마케팅 면에서의 과제와 성공 여부가 달랐던 점이 그 이유입니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디지털 은행들은 성공을 유지하기 위해 전략과 혁신을 더욱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지식노트의 저자인 최유진 서울금융혁신센터 선임금융담당관(발간 당시 금융담당관)은 한국의 디지털 은행 운영 경험을 살펴보고, 금융정책결정자와 은행업 및 핀테크 종사자들에게 도움이 될 교훈을 공유합니다.

### UNITAR CIFAL 제주국제연수센터(JITC) 온라인 워크숍 (2020년 10월 20일)



사미어 고알 서울금융혁신센터장은 제주국제연수센터(JITC)가 주최한 “금융 포용과 번영 촉진”이라는 제목의 온라인 워크숍에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JITC는 유엔훈련연구기구(UNITAR: United Nations Institute for Training and Research)의 글로벌 네트워크인 Center international de formation des autorités et leaders (CIFAL) 지부입니다. 이번 연수는 아태지역 공직자와 사회지도자들이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개발을 계획하여 실현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고알 센터장은 지속가능한 미래 창조에 있어서 포용적 금융 역할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 2020세계은행 개발을 위한 혁신기술(DT4D): 기술기업을 위한 정보세션 (2020년 11월 12일)

서울금융혁신센터, 한국사무소 CMU, 스페인 중남미 기금(Spanish Fund of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은 2020세계은행 DT4D: 기술기업을 위한 정보세션을 공동으로 주최했습니다. DT4D 과제는 세계은행의 활동에서 확장 가능한 혁신기술 솔루션을 발굴, 시범사업을 운영하여 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DT4D 과제 세션에서는 개도국 내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는 세계은행 팀들의 다양한 제안을 모집했습니다. 또한 미래의 기술기업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한국 기술기업들의 참여 방안에 대한 논의의 장을 열었습니다. 세션 마지막에는 기업들이 2020 글로벌혁신성장포럼(GIGF)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었습니다.

### 포용적 디지털 금융을 위한 오픈 뱅킹 웹 세미나: 글로벌 트렌드와 코로나 시대 한국의 경험 (2020년 12월 1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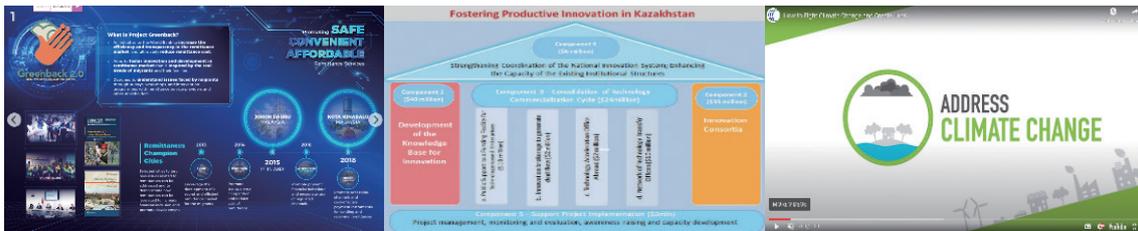
한국사무소의 혁신 및 기술 BBL(Brown Bag-Lunch) 시리즈의 일환으로, 서울금융혁신센터는 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함께 “글로벌 트렌드와 코로나 시대 한국의 경험”이라는 제목의 웹 세미나를 2020년 12월 16일에 개최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오픈뱅킹의 개요에 대한 설명과 여러 국가에서 도입한 범위, 정책, 기술 프레임워크의 주요 차이점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금융결제원(KFTC), 레이니스트, 한국금융솔루션, 세계은행의 전문가들은 오픈뱅킹의 적용 사례, 경험, 도전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자파르 무스타파오글루 FCI 동아태 제1지역 부국장(Zafer Mustafaoglu, practice manager for FCI EAP1)과 사미어 고알 서울금융혁신센터장이 각각 개회사와 폐회사를 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그루지야와 우루과이가 지식공유를 요청하여, 금융결제원은 두 국가의 요구에 맞는 지식을 별도의 웹 세미나를 통해 공유했습니다.

## 혁신 및 기술

### 세계은행 FCI국, GIGF 온라인 전시 참여 (2020년 12월 9-10일)



FCI국은 개발의 혁신과 기술에 대한 2020 글로벌혁신성장포럼(GIGF) 온라인 전시에 참여했습니다. FCI가 선정한 프로그램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복력 있는 금융 시스템 구축을 향한 말레이시아 개발 경험의 효과적인 공유를 위한 금융 포용, 핀테크, 결제 시스템 프로그램, (2) 카자흐스탄의 TCP 성공사례를 확장하여 고품질의 유용한 기술연구 및 상업화 촉진을 위한 생산적 혁신 증진 프로젝트(FPIP), (3) 전 세계와 아프리카 지역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민간부문의 해결책을 상업화하여 확대하기 위한 혁신적인 청정기술 사업들을 지원하는 기후기술프로그램 (CTP).

### 세계은행 FCI국, GIGF 제4세션 참여 (2020년 12월 10일)



토니 엘리아츠(Toni Elias) 세계은행 DT4D 프로그램매니저가 2020 글로벌혁신성장포럼 제4세션 <개도국의 혁신 진흥을 위한 스타트업과의 파트너십>에 패널로 참여하였습니다.

### 아시아재단과 IFB 서울의 지식공유행사 (2021년 3월 31일)

사미어 고얄 서울금융혁신센터장은 아시아재단과 Impact for Breakfast (IFB)가 주최한 “공공정책이 한국의 지속가능금융 성장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의 지식공유행사에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본 행사는 지속가능금융을 한국 경제 전체의 주류로 만들고, 지속가능금융을 통해 불평등과 사회 포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통찰력을 모색하는 기회였습니다.

국회와 자산운용사의 패널들은 한국의 지속가능투자가 지역과 전 세계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다른 아시아 국가들로 확대될 기회에 대해서 토론했습니다.



### 자동차 제3자 배상책임보험 연구를 위한 화상 방한 (2021년 4월 19-23일)

세계은행그룹 FCI국은 서울금융혁신센터의 신탁기금을 지원받아 2015년부터 캄보디아 정부와 금융당국에 금융부문 정책자문과 기술지원을 해 오고 있었으며, 강제보험인 자동차 제3자 배상책임보험(MTPL) 요건 재조정을 비롯한 금융 안정성, 금융 시스템 효율성, 금융 포용에 초점을 맞추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캄보디아 경제재정부 산하 비은행 금융 서비스 당국(NBFSA)은 자동차 제3자 배상책임보험 연구를 위해 화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일정 계획 지원을 세계은행그룹에 요청했습니다. 서울금융혁신센터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본 연구방문을 주관했습니다. 금감원, 국토교통부(MOLIT), 보험개발원(KIDI), 손해보험협회(GIAK), 코리아리에서 각각 캄보디아 측에 지식공유세션을 제공하였습니다.

###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1 (2021년 5월 26-28일)



하산 자만 세계은행 동아시아지역국 국장 (Hassan Zaman, World Bank East Asia Pacific Regional Director EFi)은 핀테크와 지속가능 금융혁신을 주제로 한 금융위원회(FSC) 글로벌 핀테크 엑스포와 2021 코리아 핀테크 위크(화상회의)에서 축사를 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EFi-FCI국 산하 서울금융혁신센터의 오랜 파트너입니다. 축사는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1 포털에서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www.fintechweek.or.kr](http://www.fintechweek.or.kr)).

### IFIGS-WB 웹 세미나: 보험계약자 최후 보호 수단의 미래 방향 모색 (2021년 6월 16일)

서울금융혁신센터는 국제보험계약자보호기구포럼(IFIGS), 예금 보험공사(KDIC)와 함께 “보험계약자 최후 보호 수단의 미래 방향 모색”이라는 제목의 지식공유 웹 세미나를 주최하였습니다. IFIGS의 78개 회원기관을 포함한 45개국 250여 명의 참석자들은 보험보장기구(IGS)의 가치를 모색하고 해결의 프레임워크 내에서 이들의 실제 관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서울금융혁신센터 한국 신탁기금

서울금융혁신센터의 핵심 임무는 서울금융혁신센터 한국 신탁기금을 운용하여 개도국의 금융부문 발전을 지원하는 것입니다(표 2 참조). 서울금융혁신센터는 수혜국 및 한국 파트너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동 신탁기금으로 이루어지는 금융 자문 프로그램과 분석을 지원하고 국가별 맞춤형 지식 교류를 기획합니다. 서울센터팀은 필요한 경우 동 신탁기금 사업 및 관련 국가사업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2021년 6월 말까지 동 신탁기금에서 동아태 지역 국가사업 19개와 지역 사업 5개로 총 26회의 사업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2021년 7월부터 서울센터는 혁신 및 경쟁력 프로그램 ASA를 통해 혁신과 경쟁력 강화 활동에 초점을 맞출 예정입니다. 본 프로그램 자문 및 분석(PASA) 패키지는 민간 부문의 경쟁력과 혁신, 관련 정책과 제도적 역량 개발에 중요한 주제들에 대한 진단, 연구, 지식공유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표 2. 서울금융혁신센터 한국 신탁기금이 후원한 국가 및 지역 FCI 사업

사업명	수혜국	누적 지원 규모 (단위:미 달러)	목적	한국 파트너	상태
빈곤층 금융포용 사업 (1-2기)	미얀마	4,652,000	미얀마 빈곤층 금융포용 확대를 위한 다양한 자문 제공	BOK, FSS, KIDI	완료 (2021년 6월)
금융부문 발전 사업 (1-2기)	라오스	2,320,000	라오스 금융부문 안정성 및 효율성 증진을 위한 자문 제공	JPRI, JRTI, KDIC, MOJ, SBC	진행 중
금융부문 발전 사업 (1기)	캄보디아	2,142,600	금융부문 현대화 및 제도개선의 핵심 영역에서 캄보디아 금융당국 지원	BOK, FSS, KCIF, KDIC	완료 (2021년 6월)
금융 부문 지원	몽골	1,500,000	몽골 당국의 금융 안전성 개선 지원	논의 예정	진행 중
서울금융혁신센터 프로그램 금융 자문 및 파트너십	한국, EAP	1,200,000	한국의 금융부문 발전 경험 공유를 통해 세계은행의 동아태 지역 자문 업무 지원	30 여 개 한국 파트너 기관	진행 중
베트남 금융포용지원프로그램	베트남	850,000	회복력, 포용력이 있는 현대적 금융산업 개발을 위한 베트남 정부의 노력 지원	논의 예정	착수 (2021년 6월)
서울금융혁신센터 혁신 및 경쟁력 프로그램 ASA	한국, EAP	600,000	한국 파트너 기관의 경험을 활용하여 동아태 지역과 기타 개도국 민간부문의 혁신 및 경쟁력 개선	KDI, STEPI, SNU	착수 (2021년 6월)

참고: BOK = (한국은행)Bank of Korea; EAP = (동아시아태평양)East Asia and the Pacific; FCI = (금융, 경쟁력, 혁신)Finance, Competitiveness, and Innovation; FSS = (금융감독원)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JPRI = (사법정책연구원)Judicial Policy Research Institute; JRTI = (사법연수원)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KCIF = 국제금융센터(Korea Center for International Finance); KDIC = 예금보험공사(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KIDI = 보험개발원(Korea Insurance Development Institute); KSD = 한국예탁결제원 (Korea Securities Depository); MOJ = 법무부(Ministry of Justice); PDR = 인민민주공화국(People's Democratic Republic); SBC = 서울회생법원(Seoul Bankruptcy Court); SNU = (서울대학교)Seoul National University; STEPI = (과학기술정책연구원)Science & Technology Policy Institute; TF = 신탁기금(trust fund)

서울금융혁신센터는 FCI국의 금융 안전성 감독 작업과 기타 분석 및 연구 작업에도 재정 지원을 제공하였습니다. 2021 회계연도의 주요 활동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3. 2021 회계연도 주요 활동**

<p><b>동아태 금융 부문 모니터</b></p>	<p>FCI국은 동아태 지역의 분기별 금융 부문 모니터(Financial Sector Monitor) 플랫폼을 갖고 있습니다(2020년 3, 4분기, 2021년 1분기 발행). 본 모니터의 목적은 동아태 지역 국가 전체의 최신 거시금융 현황과 금융부문의 단기 전망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기밀 자료로 구분되며, WBG의 내부 목적으로만 활용됩니다.</p>
<p><b>균등 성장, 금융, 제도(EFI)국의 거시금융 이니셔티브</b></p>	<p>FCI국은 동아태 지역의 안정과 발전에 총체적인 도전을 가할 수 있는 중요한 금융부문의 추세와 주제에 대한 통합적인 평가를 반기별로 수행합니다. 이 평가는 균등 성장, 금융, 제도 담당 부총재(EFIVP)가 이끄는 글로벌 거시금융 기밀 보고서의 데이터로 활용됩니다. 본 보고서는 춘계, 연례 회의 전 WBG 고위관리자들 내부에서 공유됩니다.</p>
<p><b>동아태 지역 업데이트</b></p>	<p>FCI국은 수석 이코노미스트실이 춘계, 연례 회의를 위해 발간하는 동아태 지역 업데이트의 금융 부문에 실릴 자료를 제공합니다. FCI국은 이 문서의 한 쪽지를 작성합니다. 최근호에 다뤄진 주제로는 동아태 지역 내 은행업의 추세와 취약점 등이 있습니다.</p>
<p><b>FCI국 코로나19 금융정책대응 개요서</b></p>	<p>FCI국은 세계은행이 수집한 공개정보와 공개된 코로나19 금융 대응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코로나19 금융정책 대응 개요서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합니다. 본 개요서는 심층 연구에 활용되며, 각국이 팬데믹에 대응하여 금융부문 지원을 위해 적용하는 조치들을 추적하는 대시보드로도 사용됩니다.</p>

## ITS 기술혁신연구소

ITS 기술혁신연구소(ITS T&I Lab)는 새롭게 부상하는 기술들의 샌드박스이자 지식 허브로서, 세계은행그룹과 파트너국들이 개발의 영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한국사무소를 혁신과 기술 글로벌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3기 프로그램들과 함께, 동아태 지역 기술혁신연구소는 2021년 5월 출범했습니다. 기술혁신연구소는 출범부터 세계은행그룹의 혁신기술 기반 프로젝트들의 사업화와 확장을 지원하고, 신기술 탐구 및 적용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전 세계 전문가들과 동아태 지역 전문가, 기술기업, 대학, 공공부문 파트너들과 함께 혁신기술 기반 프로젝트에 관한 협업과 공동 개발을 뒷받침하며, 한국의 혁신 및 기술 분야에서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부상하는 신기술에 대한 지식을 공유합니다.

## 2020코리아 블록체인 워크

기술혁신연구소는 2020 코리아 블록체인 워크(KBW)에 참여하였고, 소훈섭 세계은행그룹 한국사무소장이 연설을 하였습니다. 기술혁신연구소는 “개발 어젠다에 블록체인 기술 적용”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 발표를

## 혁신 및 기술



통해 기술혁신연구소의 블록체인 기술 활용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개발 과제를 해결하는 가능성을 논의했습니다. 해당 세션은 “코리아 블록체인 워크 픽”으로 선정되어 화상으로 진행된 2020 코리아 블록체인 워크에서 조회 수가 높은 영상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 2020 세계은행 DT4D 기술 및 혁신 협업

DT4D 2.0 출범으로 기술혁신연구소는 신흥 기술과 혁신의 탐구 및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팀들과 협업하였습니다. 기술혁신연구소는 DT4D 프로젝트 협업을 하며 팀들과 파트너국들의 신흥 기술 운영을 지원하며 기술 자문을 전달하였습니다.

표 4. T&I Lab의 유망 DT4D 프로젝트 협업

프로젝트	국가	기술과 혁신
세르비아 여행데이터 개방을 통한 디지털 시장 활성화	세르비아	세르비아의 개방형 버스 정보시스템 및 새로운 여행정보 플랫폼 구축에 자문 제공
지리데이터의 역할: 책임 있는 바나나 공급망	필리핀	GIS와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바나나 공급망에 관련된 환경, 사회적 리스크를 시각화하는 가치검증
인도네시아 도시들의 순환 경제 접근법 공동 개발을 위한 지역사회와 지자체 연결	인도네시아	녹색 경제를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를 잡아내는 쌍방향 매핑 도구와 GIS 데이터의 가치검증

**출판물: 부상하는 신기술 큐레이션 시리즈 “한국의 블록체인 생태계” (2021년 4월 19일), “개발에 도움을 주는 엣지 컴퓨팅 활용 기술” (2021년 5월 10일)**

기술혁신연구소는 부상하는 신기술 트렌드와 한국의 국제개발 사례를 소개하기 위해 블록체인과 엣지 컴퓨팅에 관한 사례연구 큐레이션 시리즈를 발간합니다. 본 사례연구들은 기술을 소개하고, 이 기술이 개발과제를 해결할 가능성을 탐구하며 민·관 부문을 아우르는 한국의 기술 생태계를 조망합니다. 이 두 가지 사례연구는 박진희, 신지호 ITS 기술혁신연구소 IT담당관이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디지털개발국, FCI국과 함께 작성하고 카이스트 김용대 교수가 감수하였습니다.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녹색성장혁신

표 5. 한국사무소 녹색성장혁신팀의 국내 파트너십

한국기관	국가	주요 혁신 관련 협력분야
•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인도네시아	적절한 가격의 주택, 토지주택공사 제도마련, 공공주택 개발 및 정책
• 한국자산관리공사	인도 투자 · 공적 자산관리국	토지, 건물, 부실채권 등 공적 자산의 수익화

### 도시·토지개발국

세계은행 도시·토지개발국(Urban, Disaster Risk Management, Resilience and Land)은 동아태 지역의 도시개발, 토지행정, 지리공간정보관리 프로그램을 재정 지원합니다. 한국사무소는 토지 및 지가평가 인프라를 개선하고, 스마트한 녹색 도시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며,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지리공간 정보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개도국들의 노력을 지원합니다.

### 아세안의 ICT 기반 토지 및 부동산 가치평가 활용 (P176933, KWPF 105만 달러, 아세안 국가)

부동산 가치평가는 경제 발전과 성장, 부의 창출에 포괄적인 영향을 미치며, 부동산 가치평가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무엇보다도 더 효율적이고 공정하며 투명한 부동산 과세, 토지수용보상, 재무보고의 기반을 구축합니다. 아세안의 ICT 기반 토지 및 부동산 가치평가 활용에 대한 프로그램 자문 및 분석(PASA)은 아세안 회원국들의 토지 및 가치평가 인프라 개선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PASA는 한국-세계은행 협력기금(105만 달러)을 활용하여 다음의 두 가지 개발 목적을 지원합니다. (i) 아세안 국가에서 부동산 가치평가 및 과세의 방식과 개발 영향에 대한 지식과 역량 개발 (ii) 부동산 과세를 위한 확장 가능한 디지털 대규모 가치평가 방법의 시범 사업 실시. 이번 PASA의 목표는 자문과 분석 종합 제공(요소 1), 대규모 부동산 가치평가와 부동산 과세 시범사업 실시(요소 2), 지식서비스(요소 3)를 통해 달성될 예정입니다.

이번 PASA는 요소 1의 일환으로 5개국 이상의 아세안 국가와 한국의 사례 연구를 통해 부동산 가치평가 시스템의 심층 진단, 분석안과 권고안을 도출할 것입니다. 사례 연구는 부동산 가치평가 시스템과 인프라, ICT 기반 혁신의 수준, 부동산 과세와 지방정부 재정에 대한 적용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이번 PASA는 지역보고서를 통해 아세안 국가에 가장 만연하고 심각한 부동산 가치평가 인프라의 기술, 인적 자원, 제도적 어려움을 조명할 전망입니다.

인도네시아의 디지털 대규모 부동산 가치평가 시범사업(요소2)은 부동산 정보, 가치, 과세 간 효과적인 연결고리를 잇기 위한 기술, 운영 면에서의 인사이트 제공을 목표로 합니다. 지방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시범사업은 셀프 업데이트와 유지관리가 가능한 반자동 토지 및 부동산기록 가치평가 수행 방식을 시험할 예정입니다. 이 작업은 궁극적으로 지역 세무서가 대규모 가치평가를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녹색성장혁신

마지막으로 요소3은 전문가집단 회의, 지역 워크숍, 한국부동산원(REB)을 비롯한 한국 파트너들과의 e-러닝 협업을 포함한 지식 확산 활동을 재정 지원합니다. 한국 사무소의 스타마티스 코투자스 선임토지행정담당관 (Stamatis Kotouzas, Senior Land Administration Specialist)이 이 새로운 이니셔티브의 태스크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유리 라이히 선임도시담당관(Uri Raich, Senior Urban Specialist)와 쿠다다드 차타(Khudadad Chattha, Young Professional (GP Governance))가 공동 태스크팀 리더(co-TTLs)를 맡고 있습니다.

### 동아태 지역의 스마트 그린 시티 (P176974, Korea TF 80만 달러, 동아태 지역)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신탁기금(80만 달러)을 활용하는 동아태 스마트 그린 시티 PASA는 동아태 지역의 스마트 도시 시스템에 관한 지식을 증대하고 사업화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문 및 기술지원 활동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i)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여 도시 환경 관리의 핵심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스마트 그린 시티 프로그램 운영을 동아태 국가에서 설계하고 실행, (ii) 동아태 지역 스마트 시티 관리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식 증대 및 전문성과 기술 교류 지원.

이번 프로젝트는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축은 국가 프로그램 분석 지원 중심이며, 두 번째 축은 지역 지식 서비스 중심입니다. 이번 PASA는 첫 번째 축을 통해 도시 단위 진단, 비용-효과 분석, 스마트 시티 모델 요소 설계, 각각의 지속가능성 계획을 포함한 국가 내 분석 및 자문 서비스(ASA)를 재정 지원할 예정입니다. 국가 프로그램 분석지원은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의 도시들에 초점을 맞추어 다음 분야에서 지원을 제공합니다. (i) 스마트 도시 토지 관리의 기반이 되는 토지 및 지리공간 인프라, (ii) 녹색, 저탄소, 회복력 있는 도시계획 및 관리, (iii) 시민의 참여와 포용.

이번 PASA의 두 번째 축은 분석보고서, 지역 행사 및 컨퍼런스, (화상)연구방문을 포함한 역량개발 활동을 재정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국토정보공사(LX), 국토연구원(KRIHS)을 비롯한 한국 파트너들과의 협업을 통해 한국의 스마트 그린 시티 개발 경험을 활용할 것입니다. 한국에서 활동하는 URL팀의 안경심 선임도시개발담당관과 스타마티스 코투자스가 이번 이니셔티브를 이끌며, 주보라 공간정보 애널리스트가 함께합니다.

### 라오스 체계적 토지등록강화 프로젝트 (P169669, 3250만 달러, 라오 인민민주공화국)

체계적 토지등록강화 프로젝트(ESLRP)는 라오스 정부가 일부 지역의 토지소유권 확보 및 토지 행정서비스 개선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본 프로젝트는 체계적인 토지 등록 및 1백만 건의 토지소유권 발급을 강화, 확대하고, 라오스의 18개 주 모두에서 국가 삼림지 밖의 증명서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2천5백만 달러 규모의 IDA 신용과 스위스

개발협력청(SDC)이 본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재정 지원합니다. 이러한 투자에 더해 한국-세계은행 협력기금이 보조금을 지원하여 ICT 및 토지행정 서비스 디지털화를 위한 기술 지원을 제공합니다. 한국사무소의 스타마티스 코투자스가 본 프로젝트와 디지털화 기술지원의 공동 태스크팀 리더를 맡습니다.

### DT4D 챌린지2.0 – 지리데이터의 역할: 책임 있는 바나나 공급망 (Korea TF 20만 달러, 필리핀)

바나나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과일이고, 필리핀은 세계 2위의 바나나 수출국입니다. 그러나, 바나나 생산은 삼림 황폐화, 아동 노동착취, 환경오염, 부실한 보건안전 관행 등 심각한 환경, 사회적(environmental and social: E&S)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최근 몇 십 년간, 지속가능성의 기준을 적용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라는 업계와 정책결정자의 요구가 거세졌습니다. 이 보조금의 목적은 혁신적 기술을 활용하여 민다나오 지방의 바나나 생산과 관련된 실질적, 잠재적인 사회, 환경적 악영향에 대해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한국사무소 신탁기금의 보조금은 개발을 위한 혁신기술(DT4D) 챌린지 2.0에 따라 제공되었습니다. 이 보조금은 공급망의 생산 단계(바나나 농장)에서의 E&S 리스크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토지관측 및 모바일 데이터 클라우드소싱과 같은 혁신 기술을 종합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보조금 집행이 종료되면, E&S 정보 시각화 공유를 위한 플랫폼이 마련되어 이해관계자(정부, 농업기업, 농민조합)의 투명한 리스크 기반 의사결정을 돕게 될 예정입니다. 스타마티스 코투자스 태스크팀 리더와 주보라 공간정보 애널리스트가 이끄는 한국사무소의 URL 팀은 한국의 ITS팀, 농업국, IFC, 그리고 유럽우주기구, 유엔식량농업기구 등 외부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 글로벌 지리공간정보 관리 자문 서비스 (P168992, 70만 달러, 전 세계)

2022 회계연도까지 연장된 녹색성장 사업화 자문 서비스 및 분석을 위한 글로벌 지리공간정보 관리는 전 세계 각국이 지리공간정보 통합 프레임워크(Integrated Geospatial Information Framework, IGIF)를 통해 글로벌 지리공간정보 관리(GIM)를 개발·통합·강화하도록 추진되었습니다. 한국사무소의 주보라 공간정보 애널리스트가 핵심 팀원으로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보라 애널리스트는 팀원으로서 UN 공간정보 관리 전문가위원회(UN-GGIM)와의 글로벌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세계 각국이 세계은행 글로벌 지식협력 신탁기금(Korea Program for Operational Knowledge, KPOK)의 혼합형 학습을 통해 일부 선발전 국가에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IGIF 보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보라 애널리스트는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 및 실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실행된 온라인 교육과정들은 2021년 2월에, 화상 지식공유 시리즈는 2021년 3월에 실시되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캄보디아와 몽골, 필리핀, 베트남에서 국가 차원의 행동과 투자 계획 준비도 지원합니다.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녹색성장혁신

### 환경, 자연자원, 청색경제(환경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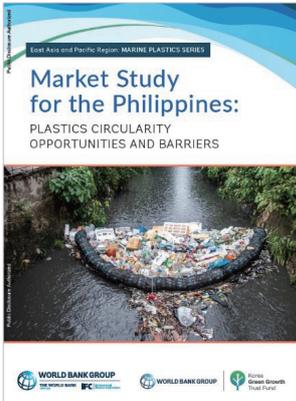
한국사무소의 세계은행 환경국(Environment, Natural Resources and Blue Economy, ENB GP)은 지속가능발전에 중요한 삼림, 오염, 연안 및 해양 생태계의 환경문제 해결을 돕는 동아시아 지역의 각종 사업을 관리합니다. 본 이니셔티브는 투자, 지식 생산과 공유, 분석평가를 통해 지식의 격차를 줄이고, 한국의 녹색성장 솔루션을 활용하여 개도국의 증거 기반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일을 포함합니다. 한국은 이러한 환경 분야의 선두에 있었으며 전 세계의 녹색 성장을 뒷받침할 교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한국사무소 환경국은 아래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기술을 활용하여 최우선적인 환경 문제를 해결한 한국의 혁신 과정이 개도국들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 동남아 해양 플라스틱 저감 프로그램 (SEA-MaP) (P175659, 2천만 달러, 아세안)

SEA-MaP 프로젝트는 동남아시아의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과 플라스틱 오염 저감을 위한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해양 플라스틱 관리 솔루션의 시범 사업과 정책 조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세 가지 축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첫째, 본 프로젝트는 아세안 지역의 대화와 지식교류를 위한 플랫폼을 활용하여 역내 공통의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행동을 진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둘째, 본 프로젝트는 지역 차원에서의 정책과 규제를 조화시켜 각 국가의 행동을 촉진하여 시장 비효율 시정, 플라스틱 재활용에 대한 낮은 인센티브 문제 해결, 대안 탐색, 스마트한 플라스틱 솔루션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것입니다. 셋째, 캄보디아와 라오스의 일회용 플라스틱 감소 및 플라스틱 재활용 증진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보조금을 제공함으로써, 반복과 확장의 가능성이 입증된 솔루션들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프로젝트는 국제개발협회(IDA)의 지역 IDA 보조금과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병행 용자를 통해 회원국들의 플라스틱 솔루션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자금 모금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뉴 슈레스타 세계은행그룹 한국사무소 선임환경담당관(Junu Shrestha, Senior Environmental Specialist)은 플라스틱 혁신을 위한 보조금 지원 설계를 이끌며 프로젝트 준비를 도왔습니다.

### 플라스틱 다시 생각하기: 아세안 지역과 일부 국가의 해양 플라스틱 문제 지원 (P170994, 180만 달러,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분석 작업 단계인 이 활동들은 모두 국가 차원의 행동들을 지원함으로써 아세안 지역의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저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다음을 포함합니다. (1) 역내 지지 활동 및 연구, (2) 태국의 국가 차원 활동, (3) 필리핀의 국가 차원 활동, (4) 말레이시아의 국가 차원 활동. 역내 활동들은 아세안 지역에 주력하며 방콕 해양 플라스틱 선언(Bangkok Declaration on Marine Plastics) 및 관련 아세안 해양 플라스틱 행동계획(ASEAN Marine Plastics Framework of Action)과 궤를 같이합니다. 필리핀 국내 활동의 일환으로, 플라스틱 관련 기술 및 정책 지식 증진을



위해 다음 네 건의 보고서가 작성되었습니다. a) 플라스틱 쓰레기 진단 강화, b) 필리핀 시장조사: 플라스틱 순환의 기회와 장벽, c) 메트로 마닐라의 고형폐기물관리 평가, d) 국가 플라스틱 정책평가. 주뉴 슈레스타 세계은행그룹 한국사무소 선임환경담당관은 프로젝트의 공동 리더로서 필리핀 프로젝트 활동을 이끌었습니다.

### 캄보디아 지속가능한 경관 및 생태관광 프로젝트 (P165344, 5440만 달러, 캄보디아)

캄보디아 지속가능한 경관 및 생태관광 프로젝트는 농촌 지역의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캄보디아의 풍부한 담수 어업 및 산림 등 천연자원 관리 강화를 위해 생태관광을 추진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본 프로젝트는 캄보디아 비목재 임산물의 가치사슬 강화를 통해 농촌의 소득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비목재 임산물 산업과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업가적 역량을 구축하고 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여, 캄보디아 천연자원을 보존하는 보호구역 제도 개선을 위한 투자도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세계은행그룹 한국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모리스 롤린스 천연자원관리담당관 (Maurice Rawlins, Natural Resource Management Specialist)이 프로젝트를 관리하였습니다.

### 어업 및 연안 회복성 프로젝트 (P174137, 2억 달러, 필리핀)

어업 및 연안 회복성 프로젝트는 필리핀의 어업 및 양식업의 현대화와 회복성 강화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프로젝트는 혁신적이고 현대적인 기술과 접근법을 활용한 어획 어업 관리 개선, 신기술·장비·인프라를 활용한 양식업 생산 증대, 출하 후 시설 및 장비의 현대화, 어업 및 양식업에 대한 민간 투자 강화 등에 투자합니다. 모리스 롤린스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천연자원관리담당관은 프로젝트 준비를 공동으로 관리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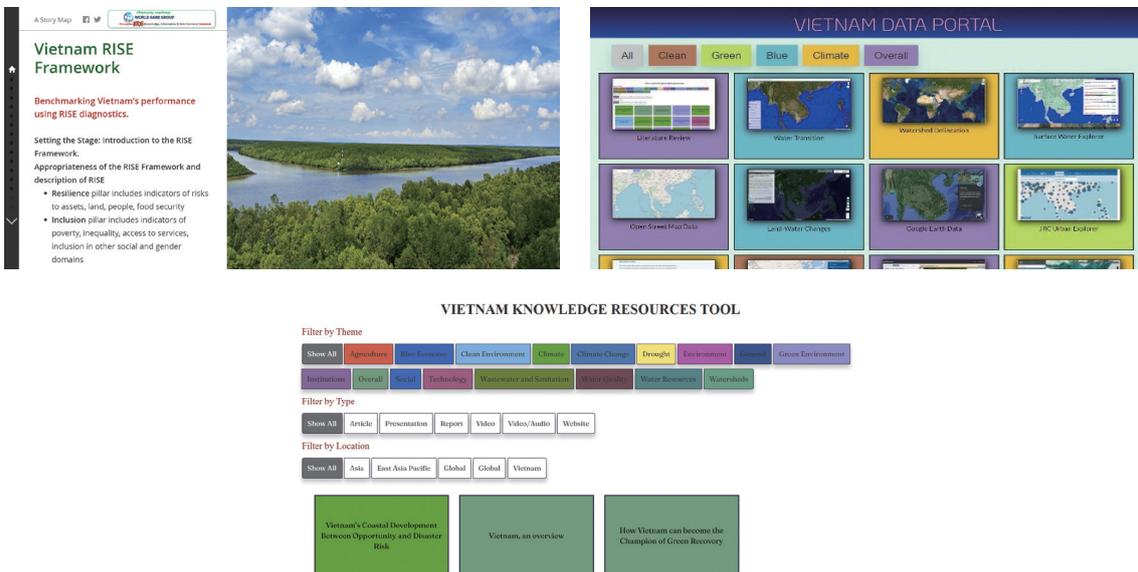
### 베트남 국가환경분석: 녹색, 청정, 기후 회복력 있는 성장의 가속화 (P175233, 10만 달러, 베트남)

베트남의 환경 관리 개선과 자연 자원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여 경제 성장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환경분석(CEA)이 실시되었습니다. 회복력, 포용력 있는 녹색 개발(GRID) 접근법에 따라, 본 연구는 회복력, 포용성, 지속가능성, 효율성(RISE)의 프레임워크를 통해 베트남의 성과를 평가했습니다. 본 연구는 베트남의 녹색 성장 현황 및 진행 상황을 분석하고 조치가 필요한 분야를 발굴했습니다.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녹색성장혁신

또한 베트남의 급속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재의 환경파괴비용(CoED)을 포괄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국가환경분석은 다양한 환경 요소 정보를 취합하고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그래프와 디지털 “스토리 맵”을 생성하여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KGGTF 기금은 이러한 디지털 산출물 생산을 위한 지리공간 도구의 활용을 지원했습니다. 주뉴 슈레스타 세계은행그룹 한국사무소 선임환경담당관이 이번 분석을 공동 지휘했습니다.

아래 사진은 그 산출물들입니다.



### 오염관리와 순환 경제 (P170784, 35만 달러)

세계은행 직원 및 개도국을 대상으로 수질오염의 주요 유형의 원인과 복구 방법을 포함한 수질오염에 관한 웹 기반 교육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은 수질오염의 특징, 주요 물리, 생물, 화학적 오염원, 악화된 수질이 인간의 건강과 세계경제에 미치는 잠재적 악영향에 대한 세계은행과 개도국 담당자들의 이해도를 증진하여 수원 관리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뉴 슈레스타 세계은행그룹 한국사무소 선임환경담당관이 본 교육의 개발을 이끌고 있습니다.

### 필리핀 기후 투자 가속화 (P171993, 330만 달러, 필리핀)

필리핀 기후 투자 가속화 프로젝트는 기후 변화 프로그램들을 위한 필리핀 정부의 국가/지자체 단위 계획 및 예산에 필요한 개혁 실행을 지원합니다. 여기에는 여러 주요 분야에서 기후 적응 및 저감을 위한 수요와 실질적인 방법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동시에 코로나19 팬데믹 대응과 회복의 과제도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모리스 롤린스

한국사무소 천연자원관리담당관이 2019년에서 2021년까지 필리핀에서 진행된 기술지원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지휘해 왔습니다.

### 녹색 기술: 녹색, 청색, 청정 운영을 위한 기술의 주류화

한국사무소 환경국(ENB)은 4주간의 글로벌 지식교류 행사인 “녹색 기술: 녹색, 청색, 청정 운영을 위한 기술의 주류화” 진행을 통해 한국이 녹색, 청색 경제와 청정 운영에 선진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기존의 환경 문제들을 어떻게 혁신적으로 해결했는지를 다루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오염, 삼림, 청색 경제와 관련된 중요한 지속가능 환경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현대적 기술 접근법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 녹색, 청색, 청정 운영을 위한 기술의 주류화에 관한 전자책

한국사무소 환경국은 혁신적인 쌍방향 전자책을 출간하여 한국의 녹색, 갈색, 청색 경제에 기술과 혁신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소개하였습니다. 독자의 지식과 학습경험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온라인 자원을 사용한 이 전자책은 텍스트뿐 아니라 하이퍼링크, 사진 갤러리, 동영상 갤러리, 대화형 그래프와 지도, 데이터 등 다양한 대화형 요소들을 사용하였습니다. 전자책은 저작권이 없는 외부 기관의 온라인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활용하였습니다.

### 온라인 학습 동영상과 세미나를 통한 한국의 고형폐기물 관리 및 폐기물 에너지화 기술에 대한 지식 확산

한국사무소 환경국은 한국의 고형폐기물 관리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KGGTF와 글로벌 지식협력 신탁기금(KPOK)의 지원을 받아 고형폐기물 관리(SWM) 온라인 학습 시리즈를 만들었습니다. 본 온라인 학습 시리즈의 주요 목적은 개도국들의 매립지 관리와 운영을 개선하고 폐기물 에너지화(WtE) 기술 활용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한국사무소 환경국은 또한 필리핀 정부를 위해 폐기물 에너지화 기술과 운영에 초점을 맞춘 고형폐기물 관리에 관한 지식공유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필리핀의 메트로마닐라개발청(MMDA)의 기술전문가와 정부 관료들이 행사에 참여하여 한국 환경부 산하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C)와 논의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녹색성장혁신

### 한국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대한 지식확산과 심화 연구 착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함께 개최한 “APEC의 순환 경제를 위한 EPR제도의 역할”이라는 제목의 온라인 세미나에서는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혁신적, 포괄적 해결책으로서 EPR 제도에 대한 근거와 지지가 제공됐습니다. 상세한 한국의 EPR 제도 내용과 성공 요인이 강조되었습니다. EPR제도에 관한 한국의 규제 및 정책 경험 평가와 필리핀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에서의 EPR 이행을 위한 제도적 역량 강화에 필요한 실제적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심화 연구도 시작되었습니다. 주뉴 슈레스타 세계은행그룹 한국사무소 선임환경담당관이 본 과제를 이끌고 있습니다.

### 한국의 혁신적인 산불관리에 관한 지식산출물 개발

2020년 2월에 체결된 의향서(SOI)에 따른 산림청(KFS)과 세계은행 환경국 간 협업의 일환으로, 한국사무소 환경팀은 산림청의 경험과 전문성을 소개하고 산불예방과 저감을 위한 혁신적 기술 사용 사례를 보여주는 산불관리 온라인 학습 시리즈를 개발했습니다. 학습 목표는 참여자들에게 산불 관리의 기본 개념과 내용, 다양한 산불예방과 저감 방법, 그리고 산불관리 기술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또한 환경국은 글로벌 지식협력 신탁기금(KPOK)의 지원을 바탕으로 글로벌 딜리버리 이니셔티브(GDI)가 출간한 “한국의 스마트 산불관리: 데이터 기반, 사용자 중심의 산불 예측 및 감시 체계 구축”에 기여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한국이 산불 예측과 감시에 대한 데이터 기반 접근법을 통해 어떻게 기존 체계를 바꾸어 산불의 높은 리스크를 해결하고 국가 차원의 위기 대응을 강화했는지 분석하고자 하였습니다. 모리스 롤린스 세계은행그룹 한국사무소 천연자원관리담당관이 산림청, KPOK과 함께 본 지식산출물 개발을 이끌었습니다.

### ASEAN과 함께 한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 2021 서울 P4G 정상회의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는 2021년 5월 26-28일, 서울에서 두 번째 정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본 행사에는 각국 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계가 참여해 혁신적 파트너십을 통한 지속가능 성장의 길을 모색했습니다. ASEAN 사무국은 해양수산부(MOF)가 주최한 “바다를 통한 더 푸른 재건”이라는 제목의 해양 특별 세션에서 동남아 해양 플라스틱 저감 프로그램(SEA-MaP)을 소개하였습니다. 주뉴 슈레스타 세계은행그룹 한국사무소 선임환경담당관은 해수부와 협력하여 ASEAN을 P4G에 참여시키는 데 앞장섰습니다.

## 에너지: 탈탄소화를 향한 에너지 전환 지원

세계은행 에너지국(Energy and Extractives, EEX GP)은, 에너지 부문 관리 지원 프로그램(Energy Sector Management Assistance Program) 등의 청정에너지 프로젝트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적정 가격의 안정적인 전력 서비스를 확대하고 에너지 빈곤 종식을 위한 기술·금융·정책 혁신을 지원합니다. 특히, 한국사무소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다수의 한국 기관과 협력하여 재생 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향상 프로젝트를 통해 동아시아 지역 국가의 청정에너지 체제 전환 가속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관과의 협력 방향을 결정하고 강화하는 포괄적 프레임워크를 구성하는 MOU들이 체결되어 왔습니다. 2018년 8월, 세계은행 에너지국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에너지 효율성, 에너지 접근, 재생에너지 분야를 목표로 적정 가격의 신뢰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하며 현대적인 에너지를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세계은행 한국사무소는 에너지 혁신 파트너십을 확대하기 위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전력과 2020년 10월과 11월에 각각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 MOU들은 에너지 분야의 탈탄소화, 분산화, 디지털화를 통해 개도국의 에너지 접근성 및 기후변화 대응 개선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세계은행 동아시아 지역 에너지국은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몽골 등 석탄 사용량이 높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지역 정부들의 에너지 전환 참여와 대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동아시아 지역의 에너지 전환 지원”이라는 제목의 프로그램 자문 및 분석(PASA)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PASA는 세계은행그룹 한국사무소가 일부 재정 지원하여 동아시아 지역의 에너지 전환을 주류화하고 도모하기 위해 한국사무소를 통해 한국과의 협력에 발판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한국 정부는 2019년 “2040 에너지 전환” 정책을, 2020년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발표하였는데, 두 가지 모두 이번 PASA와 관련이 깊습니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저탄소 지속가능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한국의 지식과 정책, 기술 경험을 공유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울란바토르 청정 대기 프로젝트 (P122320, 2700만 달러, 몽골)

울란바토르 청정 대기 프로젝트(UBCAP)는 게르 지역의 소비자들이 미세먼지 배출이 적은 난방기구를 사용하고 개발 파트너들과 함께 울란바토르의 미세먼지 저감 중기 조치를 개발할 수 있게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세계은행은 UBCAP를 통해 친환경 난방 에너지 확대를 위한 몽골 정부의 정책 및 규제 개선을 지원하고, 기술 자문과 인식 제고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에너지국 황인철 선임에너지담당관(Inchul Hwang, Senior Energy Specialist)이 프로젝트의 공동 리더를 맡고 있습니다. 한국사무소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의 재정 지원으로 2019년 11월에 몽골 공무원 9명을 서울에 초청하여 세계은행그룹-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공동 ‘몽골 건물에너지 효율 향상 지식교류’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몽골 공무원들은 한국이 어떻게 관련 규제 및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관련 녹색 기술의 보급을 촉진하여 건물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켰는지를 직접 보고 배우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참가자들은 주거용 건물(에너지 제로 아파트)과 상업용 건물(그린 제로 에너지 사무실),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난방시설, 노후 아파트 대상 녹색 주택 개보수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녹색성장혁신

### 지속가능 에너지 접근성 프로젝트 (P153268, 2500만 달러, 필리핀)

지속가능 에너지 접근성 프로젝트(ASEP)는 배전협동조합이 전기를 공급하는 필리핀 일부 지역 가구들의 태양열 접근성 증대를 목표로 합니다. 주된 대상은 필리핀에서 전기화가 가장 늦고 취약·분쟁·폭력(FCV)에 가장 많이 노출된 민다나오 지역의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가구들입니다. ASEP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1) 태양광의 주류화: 민다나오 지역에 가정용 태양광발전 시스템(SHS) 설치, (2) 농촌 태양광 네트워크: 루손 섬, 비사야 제도, 민다나오의 7개 배전협동조합(EC) 내 7MW급 태양광 발전소(솔라팜) 설치, (3) 선불 계량기: 민다나오 지역 일부 배전협동조합에서 선불식 계량기 시범사업. 세계은행그룹 한국사무소는 2022 회계연도부터 본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이끌 한국사무소 에너지국 황인철 선임에너지담당관의 참여로 프로젝트에 기여해 왔습니다.

### 베트남 산업 에너지 효율화 프로젝트 (P151086, 1억 달러, 베트남)

베트남 산업 에너지 효율화(VEEIE) 프로젝트의 개발목표는 베트남 산업계의 에너지 효율성 향상입니다. 한국사무소는 본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산업 에너지 효율 향상 기술 및 사업모델의 실행 가능성을 소개하고 관련 기업, 금융기관 및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의 경험을 공유하는 지식 교류 행사를 한국에서 주최하였습니다. 행사에 초청된 베트남 공무원들은 에너지절약전문기업협회, 에너지 효율 관련 기업체 등을 방문하여 에너지 효율화 정책 도입과 관련 사업 기회 발굴 및 실행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받았습니다. 본 지식 교류는 베트남에 유망하고 수익성 있는 산업 에너지 효율화 프로젝트의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투자를 유치하여 에너지 효율성 증대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되었습니다.

### 태평양 도서국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산업 개발 프로젝트 (P152653, 566만 달러, 태평양 도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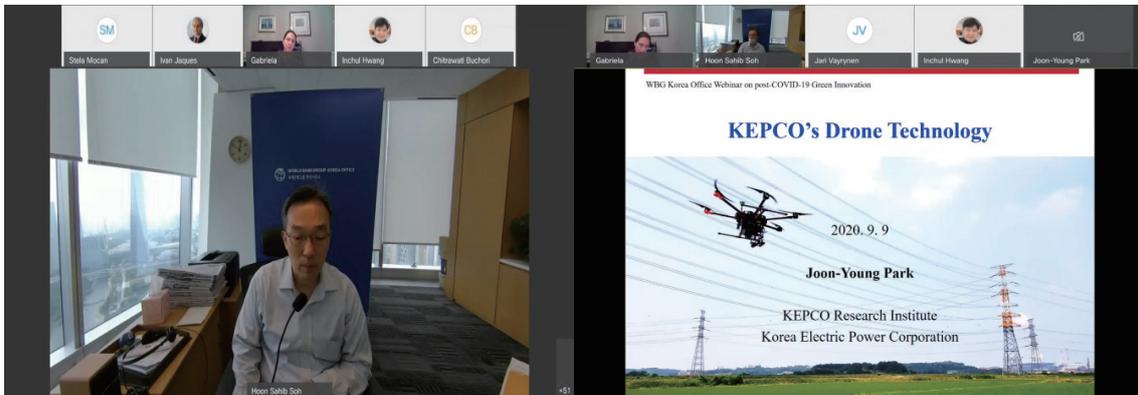
태평양 도서국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산업 개발 프로젝트(SEIDP)는 태평양 도서국 지역 전력사들의 데이터 가용성과 역량을 강화하여 재생에너지 기술 적용과 재난 위험 대비를 위한 장기 계획 수립·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프로젝트의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화 가이드라인 개발에 참여 중인 에너지국 황인철 선임에너지담당관은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태평양 전력협회(Pacific Power Association, PPA) 회원사들과 태평양 도서국 담당 세계은행 직원들을 한국전력공사의 대표 행사인 빛가람 국제전력기술엑스포 (BIXPO) 2019에 초청하였습니다. 초청된 PPA 관계자들은 태평양 도서국 지역 e-모빌리티와 배터리 저장장치 프로그램에 한국의 전문지식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PPA 관계자들은 또한 2020년 5월에 개최하는 e-모빌리티와 에너지 저장장치에 관한 화상 지식교류 행사에도 초대되었습니다.

## 에너지 혁신 파트너십 확대를 위한 KETEP, KEPCO와의 MOU

세계은행그룹 한국사무소는 한국전력공사(KEPCO) 및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과 2020년 10월과 11월에 각각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습니다. 본 MOU는 에너지 분야의 탈탄소화, 분산화, 디지털화를 통해 개도국의 에너지 접근성 및 기후변화 대응 개선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 세계은행그룹 한국사무소, 한국 전력부문 디지털화에 관한 웹 세미나 개최 (2020년 9월 9일)

세계은행그룹 한국사무소와 한국전력공사(KEPCO)는 2020년 9월 9일, 한국의 전력부문 디지털화에 관한 웹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한국의 전력부문은 2018년 무려 3.56%의 낮은 출력손실계수를 기록한, 전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발전, 송/배전 시스템을 자랑합니다. 이러한 성공에는 송배전망과 설비의 운전 및 유지보수(O&M)를 지속적으로 개선, 최적화한 한전의 노력이 있습니다. 한전은 드론 기반 시설물 점검, 지능형 검침 인프라(AMI), 배터리 저장 등 계통 효율성 개선과 복원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전환을 이행해 왔습니다. 세계은행 에너지국과 개도국 전력생산기업들은 한국의 디지털 혁신 이행 경험에 대해 설명을 듣고 전력부문의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설계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전, 아주대학교, Tide社の 연사들은 국내외의 드론 기술, 배터리에너지저장 시스템(BESS), AMI 등의 적용 경험과 교훈을 공유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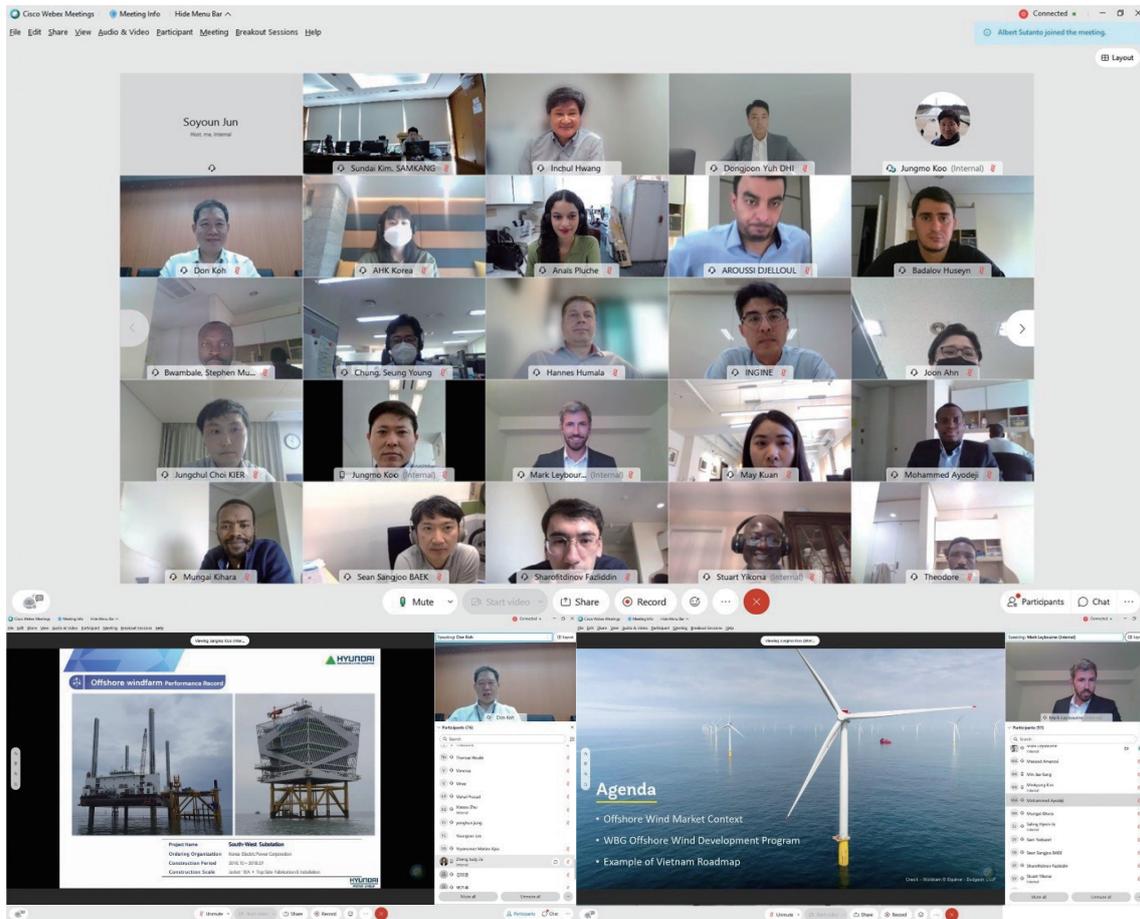


## 세계은행그룹 한국사무소, 한국의 해상풍력에 관한 웹 세미나 개최 (2021년 5월 13일)

한국 정부는 2030년까지 전체 전력 중 재생에너지 비중 20%를 달성한다는 “재생에너지 3020”비전을 2017년 발표하였습니다. 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16.5 GW의 풍력이 전력망에 추가되어야 하며 13GW가 해상풍력으로 추가되어야 합니다. 목표 달성을 위한 비전을 지원하기 위해, 세계은행그룹 한국사무소와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녹색성장혁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은 2021년 5월 13일, 한국의 해상풍력에 관한 웹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해외 R&D의 일환으로, 세계은행 에너지국과 개도국 전력생산기업의 참가자들은 KETEP의 해상풍력 프로그램 담당자, 두산중공업, 현대엔지니어링, 삼강엠앤티 등 해당 분야 한국 기업들로부터 한국의 해상풍력 정책, 사례연구, 관련 기술에 대한 발표를 들었습니다.



## 세계은행-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시범사업

에너지국과 KIAT 간 체결된 MOU에 따라, 세계은행과 KIAT는 KIAT의 보조금과 세계은행의 자문 및 동원력을 활용하여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의 시범 사업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양자는 1년 차 제안서 공모 이후 대상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2년 차에 KIAT는 선정된 사업의 범위 연구 수행, 산업통상자원부에 배분, KIAT에 위임된 에너지산업 ODA의 일환으로 해당 사업들에 대한 ODA 예산을 확보하고, 3년 차에 시범사업을 진행합니다. 현재 세네갈의 배터리 저장 사업과 나이지리아의 소형 태양광 발전장치 사업이 성공적으로 보조금을 수혜, 이행 단계에 있습니다.

한국사무소 에너지국 직원들은 필리핀 에너지팀이 KIAT에 라스트 마일 전력화 사업(전기가 없는 지역의 소형전력망) 지원서를 제출하도록 도왔으며, 현재 보조금 수혜 여부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시범사업들은 보조금 수혜국에 기술적 해결책에 대한 신뢰를 제공하고, 현재 또는 향후 세계은행 사업의 개발 목표 달성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에너지국 직원들은 본 사업들 이행에 계속해서 지원과 조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표 6. 한국 기관과의 파트너십

프로젝트/프로그램	한국 기관	주요 활동
한전이 주최한 BIXPO에서 열린 세계은행 에너지포럼, 태평양 도서국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산업 개발 프로젝트(P152653)	KEPCO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IXPO에서 세계은행 에너지포럼 개최</li> <li>• e-모빌리티와 ESS에 대한 지식교류, 현장 방문, 한국 파트너들과의 교류</li> </ul>
서아프리카 전력사 교육(2019) 및 후속교육	K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력거래소와 에너지국 아프리카팀이 2018년 서아프리카 전력사들에게 교육 제공</li> <li>• 교육 활동 조율, 전력거래소 및 에너지국과 의사소통</li> </ul>
베트남 산업 에너지 효율화 프로젝트 (P151086)	KE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에너지 효율화에 관한 현장 방문 및 한국 파트너들과의 교류</li> <li>• KOICA의 베트남 산업에너지 효율화 보조금으로 베트남 지원</li> </ul>
올란바토르 청정 대기 프로젝트 (P122320)	KET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몽골의 건물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지식교류</li> <li>• 현장 방문 및 한국 파트너들과의 교류</li> </ul>
세계은행 - KIAT 시범 사업	KI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OU 체결 (2018)</li> <li>• 2019년부터 공적개발원조(ODA) 제안서 공모 3차례 실시</li> <li>• 세네갈 배터리 저장 사업과 나이지리아 소형 태양광 발전장치 사업 이행 중</li> </ul>

## 한국녹색성장신탁기금

한국녹색성장신탁기금(Korea Green Growth Trust Fund, KGGTF)은 세계은행그룹과 한국 정부의 미래 지향적 파트너십입니다. 본 파트너십은 세계은행의 포용적인 녹색 성장 목표와 개도국의 지속가능성장 전략 및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2011년에 출범했습니다. KGGTF는 세계은행에서도 독특한 지위를 가지며 다양한 분야에 걸친 접근법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이후 더 발전하는 친환경적 재건을 위한 전 세계의 집단적인 노력에 따라, KGGTF의 활동에 대한 요구는 더욱 늘어났습니다. 세계은행그룹의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맞추어, KGGTF는 회복력, 포용력 있는 녹색 개발(GRID) 촉진을 위해 다방면에 걸친 총체적 접근법을 사용합니다. 친환경적인 포스트 코로나 회복에 대한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녹색성장혁신

KGGTF의 의지는 한국의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녹색 성장 프로젝트의 경험과 교훈을 8년 이상 축적한 KGGTF는 세계은행의 180개 프로젝트에 보조금 지원을 제공하고 농업, 에너지, 환경, 디지털 개발, 교통, 도시, 물 등 주요 분야에서 최신의 녹색 성장 관련 지식, 기술적 해법과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필수적 역할을 해 왔습니다.

훌륭한 성과, 그리고 세계은행 프로젝트팀과 전 세계 개도국의 높아지는 요구에 부응하여 KGGTF는 계속 확장하며 최근 2차 재원보충에 따라 2024년까지 녹색성장 프로그램에 총 1억3천8백만 달러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KGGTF가 지출한 자금은 세계은행 차관 및 외부 공동 재정지원을 통해 누적 150억 달러 이상을 조달하여, 1달러 투자 대비 무려 160달러 조달이라는 비율을 보입니다.

2020년 9월, 왕형근 신임 KGGTF 팀장이 전임 이은주 팀장의 뒤를 잇게 되었습니다. 세계은행 모든 지역에서 다년간의 다양한 융자 및 ASA 경험이 있는 왕형근 신임 팀장은 KGGTF 보조금 활동의 결과와 사업의 연관성을 개선하고, 보조금 프로젝트와 KGGTF 및 한국사무소의 여러 녹색성장 지식활동 간의 시너지를 강화할 전망입니다.

세계은행은 KGGTF 자금을 통해 RISE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RISE(Resilience, Inclusion, Sustainability, Efficiency) 프레임워크는 회복력, 포용성, 지속가능성, 효율성이라는 경제성장의 양과 질 유지에 필수적인 네 가지 축을 중심으로 개발 과제들을 진단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이 프레임워크의 도구들은 개발의 주요 과제들을 도출하고, 30여 개 국가들이 더 개선되고 친환경적인 회복을 위한 맞춤형 해법을 개발하는 리더들의 노력을 GRID 진단을 통해 지원하는 데 높은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KGGTF는 계속해서 세계은행 한국사무소의 주요 파트너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KGGTF는 한국사무소의 에너지국, 환경국, 도시·토지개발국과 협력해 녹색성장 혁신, 지식, 교육 활동을 진행하며 개도국들의 요구에 부응해 왔습니다. 공동으로 진행한 지식 활동에는 베트남 산업 에너지 효율화, 빛가람 국제전력기술엑스포(BIXPO), “코로나19 녹색 혁신: 한국 전력부문의 디지털화” 웹 세미나, “녹색기술: 녹색, 청색, 청정 운영을 위한 기술의 주류화”를 통한 한국의 선진 환경문제 해결 기술에 대한 지식공유, 고품폐기물 및 산불관리에 대한 온라인 학습 동영상 제작 등이 있습니다.

KGGTF는 한국의 지식파트너(K-파트너) 및 한국사무소 팀들과 협력하여 다음의 녹색성장 지식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 **2021 한국 녹색혁신의 날(KGID):** KGID는 KGGTF가 기획하는 대표 연례 지식공유 행사입니다. 2021 KGID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녹색 회복”이라는 주제로 2021년 4월 22-23일(한국시간) 하이브리드 형태로 개최되어, 한국 파트너들이 세계은행 프로젝트팀 및 개도국과의 파트너십 기회를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 **KGTF 지식교류 분야별 가이드북:** 이 가이드북은 농업, 에너지, 환경, 도시, 토지, 교통 분야의 녹색성장 접근 이행을 위한 한국의 전략, 아이디어, 정책 해법들을 제시합니다.
- **토양 검정에 대한 KGGTF 화상 지식교류 행사:** KGGTF와 농촌진흥청(RDA)은 2020년 7월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한국의 농업 혁신 경험을 세계은행, 우즈베키스탄과 나누는 화상 지식교류 행사에서 토양 검정과 토양 관리 기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KGGTF와 농촌진흥청은 지식교류 분야별 가이드북 중 농업 부문을 함께 집필하기도 했습니다.
- **한국의 고품폐기물 관리 교육 시리즈:** KGGTF 팀은 글로벌 지식협력 신탁기금(KPOK) 및 환경국의 동아태 담당팀과 함께 다섯 건의 짧은 교육용 동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이 교육 시리즈는 한국의 녹색 성장 및 순환 경제를 위한 폐기물 관리 정책과 전략의 변화에 대해 설명합니다.
- **웹 세미나와 워크숍:** KGGTF는 글로벌녹색성장이니셔티브 (GGGI) 및 녹색성장지식플랫폼(GGKP)을 포함한 글로벌 지식파트너와 공동으로 웹 세미나와 워크숍을 연이어 주최했습니다. KGGTF는 공유국과 한국사무소가 주최한 한-IDA 기술워크숍, 2020 글로벌 혁신성장포럼 등 여러 주요 워크숍에서 발표를 맡기도 했습니다.

## 범분야 지원

### 글로벌 지식협력 신탁기금

한국사무소의 오픈러닝캠퍼스(OLC)팀은 세계은행 사업에 혁신 및 기술 중심 솔루션을 적용하기 위한 역량개발, 적시학습 과정, 사례연구 등을 제공하여 한국사무소의 혁신, 기술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2021 회계연도 글로벌 지식협력 신탁기금(KPOK)의 활동에는 30개의 온라인 학습 과정, 5건의 화상 지식교류, 10건의 사례연구와 16건의 요약보고서가 있습니다. 절반 이상의 활동은 한국의 녹색 기술의 경험, 스마트 시티 개발, 지리공간정보 관리, ICT 기반의 코로나19 대응 등 혁신 및 기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OLC 팀은 중저소득 국가들이 국가 차원의 프로젝트와 복잡한 개발 도전과제에 직접 적용 가능한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개발지식과 학습을 제공하는 KPOK 활동을 관리,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KPOK은 다양한 온라인 과정, 학습 시리즈, 화상 워크숍 등의 활동을 통해, 저소득국에서 세계 경제강국으로 발돋움한 한국의 사례로부터

## 범분야 지원

얻은 지식을 활용합니다. 한국의 OLC팀은 한국에서의 파트너십 개발과 양성을 통해 관련성 높고 적용 가능한 한국의 사례와 지식이 KPOK의 활동과 연계되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팀은 또한 한국의 전문분야국(GP)과 긴밀히 협력해 산출물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세계은행그룹 한국사무소의 혁신 및 기술 프로그램에 기여합니다.

## 코로나19와 KPOK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화상 형태의 지식 및 학습자원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학습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주는 현 상황에 대응하여, KPOK은 지금까지의 학습을 화상으로 전달하기 위한 더 많은 방법을 도입하고 동시에 온라인 학습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KPOK의 전통적 학습내용을 화상으로 전달하기 위한 혁신적 방법 중의 하나로 도입된 OLC-KPOK 화상 지식교류 시리즈를 통해, 개발 실무자와 이해관계자들이 가상의 교실에 모여 라이브 웹 세미나, 자기 주도활동, 과제 제출, 동료 간 학습 활동 등을 통해 함께 배우고, 나누고, 협동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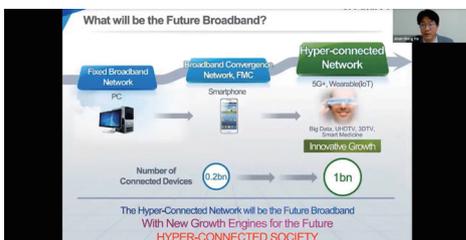
## 녹색기술: 녹색, 청색, 청정 운영 기술 주류화 (2020년 11-12월)

OLC-KPOK 화상 지식교류시리즈의 첫 세션인 “[녹색기술: 녹색, 청색, 청정 운영 기술 주류화](#)”에는 438명이 등록, 참석했습니다. 환경국과 함께 주최한 이 학습 세션은 세계은행과 개도국의 환경, 자연자원, 청색경제 문제 해결에 현대적 기술을 혁신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지식교류 세션의 일환으로, [녹색경제 e-북](#)과 [고형폐기물관리 학습시리즈](#)가 학습자원으로 개발되어 참석자들에게 제공되었습니다.

Event Schedule	
<b>Clean Environment</b>	Live Webinar Nov. 16, 2020 9:30am ET   12:30pm GMT   10:11:30pm Korea Self-paced for week 1
<b>Green Environment</b>	Live Webinar Nov. 23, 2020 9:30am ET   12:30pm GMT   10:11:30pm Korea Self-paced for week 2
<b>Blue Economy</b>	Live Webinar Nov. 30, 2020 9:30am ET   12:30pm GMT   10:11:30pm Korea Self-paced for week 3
<b>Integrated GreenTech</b>	Live Webinar Dec. 7, 2020 9:30am ET   12:30pm GMT   10:11:30pm Korea Self-paced for week 4



광대역 확장과 접근성 격차 감소를 위한 혁신적 사업모델 (2020년 12월)



디지털개발국과 함께 개최한 “광대역 확장과 접근성 격차 감소를 위한 혁신적 사업모델”이라는 제목의 화상 지식교류는 정책결정자와 규제담당자들이 인프라 설치를 위한 대안을 평가하고 자국의 상황과 필요에 맞는 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442명이 참석한 이 시리즈는 고속 광대역망의 설치에 대한 혁신적 사업모델과 접근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향후 예상 수요를 충족하고 기존의 인터넷 접근성 격차를 줄이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전 세계 지상 스펙트럼 자원 추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범분야 지원

### 지리공간정보관리의 강화: 지리공간정보 통합 프레임워크(IGIF) 사용 (2021년 3-4월)

도시·토지개발국과 공동 개최한 “지리공간정보관리의 강화: 지리공간정보 통합 프레임워크(IGIF)의 사용”이라는 제목의 가상 지식교류는 실무자들이 복잡한 지리공간정보시스템을 이해하고, 다양한 차원에서 지리공간정보와 인프라를 통합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경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113개국의 참가자 828명이 1200개가 넘는 자료를 게시하며 본 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Relevance of Geospatial Technology and Information

From Global...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rely on geospatial technology to achieve the targets and use location as an information integrator

TO National and Local...  
4<sup>th</sup> Industrial Revolution  
Smart and Resilient Cities  
E-Government  
Precision Agriculture...  
Require accurate and current geospatial data

WORLD BANK GROUP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스마트 시티(2021년 4-5월)

What Are Smart Cities?

"Smart city plans and manages its core functions by effectively using data and digital technologies to become efficient, innovative, inclusive and resilient."

"Digital technologies are key enablers, but urban planning and management remain in the driver's seat."

(Smart City White Paper, WB, 2018)

Cities becoming "Smarter"

- Leveraging technology and existing planned infrastructure
- Promoting organic integration of the IT physical, social and business infrastructure
- Collecting and translating large amount of data into insights
- Realizing a citizen-centric approach

글로벌 스마트시티 파트너십 프로그램과 함께 설계하여 개최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스마트 시티”라는 제목의 가상 지식교류는 자기주도학습과정(248명 등록)과 촉진학습과정(637명 등록)의 성공을 바탕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증가하는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이번 가상지식교류는 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시티 개발, 실천공동체(CoP) 양성 등의 주제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전 세계의 성공 사례를 다루었습니다. 134개국 1100여명의 학습자들이 이 과정에 등록하여 4번의 라이브 세션, 과제, 자유 토론에 참여하였습니다.



Building Smarter Cities

**Building Smarter Cities**

**Description:** For the first time in history, more than half of the world's population lives in cities. Over 90 percent of urban growth is occurring in the developing world, adding an estimated 70 million new residents to urban areas each year. Demand for services in urban areas is therefore increasing exponentially, and the capacity of local governments to manage this demand is challenged.

When we think about Smart Cities, we usually go in one of two directions: On one hand, we may think about a very technology-intensive city, where sensors are everywhere and public services are provided in a very efficient manner, mainly because of the technology they use and decisions being based on information that is gathered in real time by thousands of interconnected devices.



**Korean Green Growth**

**Description:** Korea's remarkable transition over several decades from the recipient of global aid to a strong, thriving economy and World Bank donor is an inspiring story. As a nation, its first-hand experience developing solutions across the urban, transpor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energy, environment, water and agriculture sectors is highly relevant for many developing countries facing similar challenges.

## 범분야 지원

### 글로벌 딜리버리 이니셔티브와의 작별

글로벌 딜리버리 이니셔티브(GDI)는 개발프로젝트의 이행 노하우를 수집, 공유하여 개발의 성과 개선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된 글로벌 파트너십이었습니다. 세계은행은 2015년에 GDI를 글로벌 공공재로 성장시키는 과정을 시작하였고, 2021년 6월 프로그램의 종업을 결정했습니다. GDI가 세계은행을 떠나 KPOK는 더 이상 GDI 사업에 재정지원을 하지 않지만, 지난 몇 년간 이어진 협업의 가치를 높게 평가합니다. GDI의 업적은 여러 사례연구와 요약보고서, 그리고 협력을 바탕으로 진행된 역량개발프로그램들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표 7. 2021 회계연도 KPOK 활동

프로그램	참가국	목표	한국 파트너	프로젝트 결과물
<b>오픈 러닝 캠퍼스</b>				
온라인 강좌	전 세계	다목적이며 실행 가능한 강좌를 온라인으로 제공하여 개발솔루션 이행을 위한 기술역량 구축을 지원	• OLC 온라인 강좌를 통해 한국 사례를 공유한 40여 명의 지식전수자	한입크기(bite-sized) 학습과정 9개 자기주도 학습과정 10개 촉진학습과정 10개 *
화상 지식교류	전 세계	개발 실무자와 이해관계자들이 가상의 교실에 모여 라이브 웹 세미나, 자기 주도활동, 과제 제출, 동료 간 학습 활동 등을 통해 함께 배우고, 나누고, 협동하게 함으로써 개발솔루션 이행을 위한 기술역량 구축을 지원	• FIRA • KEC • KEITI • KFS • KMI • 경희대학교 • MOLIT • NGII • NIFS • SLC • SNU • Space N • 한국 연사, 30여 명의 지식전수자가 제공한 사례와 인용문	화상 지식교류 5회
<b>글로벌 딜리버리 이니셔티브</b>				
사례연구	전 세계	개발 프로그램의 더욱 효과적인 실행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 기반을 구축. GDI 사례연구는 프로젝트 실행에서 발생하는 도전과제 및 해결 과정을 분석하는 실행 과정 추적 방법론을 사용.	• KFS • KOTI • OEL • MOIS • MSIT	사례연구 10개

프로그램	참가국	목표	한국 파트너	프로젝트 결과물
요약 보고서	전 세계	개발 프로그램의 더욱 효과적인 실행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 기반을 구축. 요약 보고서는 프로젝트 실행의 도전과제와 해결 과정 분석을 더 간략하게 요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ODSC</li> <li>• PCNC</li> <li>• PPS</li> <li>• SMC</li> <li>• SMG</li> </ul>	요약보고서 16개

참고: \* 반복 진행 횟수 포함

FIRA =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Korea Fisheries Resources Agency); KEC = 한국환경공단(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KEITI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Korea Environmental Industry & Technology Institute); KFS = 산림청(Korea Forest Service); KMI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MOLIT = 국토교통부(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NGII = 국토지리정보원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NIFS = 국립수산물과학원 (National Institute of Fisheries Science); SLC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Sudokwon Landfill Site Management Corporation); SNU = 서울대학교(Seoul National University); KOTI = 한국교통연구원 (Korea Transport Institute); MOEL = 고용노동부 (Korea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MOIS = 행정안전부(Ministry of Interior and Safety); MSIT = 과학기술정보통신부(Korea Ministry of Science and ICT); ODSC =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Open Data Strategy Council); PCNC = 대통령자문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Presidential Council on National Competitiveness); PPS = 조달청(Public Procurement Service of Korea); SMC = 서울특별시의회 (Seoul Metropolitan Council); SMG = 서울시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표 8. 2021 회계연도 KPOK의 기술 및 혁신에 관한 지식 산출물

프로그램	산출물	
오픈 러닝 캠퍼스		
온라인 강좌	한입크기 (bite-sized) 학습과정	What's Cooking - 디지털 농업 학습 시리즈
		고형폐기물관리 학습 시리즈
		한국의 ICT 기반 코로나19 대응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스마트시티
		기술을 활용한 물 관리
		한-아프리카 혁신적 농업기술 지식교류
		한국의 디지털 정부 정책 우수사례
자기주도 학습과정		스마트시티
		수동적 도시냉각 솔루션
		에너지 접근성의 숨은 면: 클린 쿠킹 이해하기
		디지털 정부 준비태세 평가
		5G와 공공서비스 전달 & 디지털 경제 운영을 위한 부상하는 신기술 - 5G 네트워크 입문: 실무자를 위한 이행 학습

## 범분야 지원

프로그램	산출물	
	촉진 학습과정	광대역 확장과 접근성 격차 해소를 위한 혁신적 사업모델
		지리공간정보 관리 강화: 통합 지리공간정보 프레임워크의 사용
		스마트시티
		국민 등록 및 필수 통계
		대기질 관리체계 입문
화상 지식교류		녹색 기술: 녹색, 청색, 청정 운영을 위한 기술의 주류화
		광대역 확장과 접근성 격차 해소를 위한 혁신적 사업모델
		지리공간정보 관리 강화: 통합 지리공간정보 프레임워크의 사용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스마트시티
<b>글로벌 딜리버리 이니셔티브</b>		
사례 연구		참여형 지도제작: 지리공간데이터의 가용성, 접근성, 유용성을 높인 서울의 여정, 2007 - 2018
		공공재로서의 데이터: 서울의 오픈 데이터 플랫폼 구축, 2011 - 2016
		공공서비스의 투명성과 품질 강화: 대한민국의 오픈 데이터 정책
		스마트 교통카드 (티머니): 서울 시민의 이동성 개선을 위한 대중교통 시스템 통합, 1996 - 2004
		한국의 스마트한 산불관리: 데이터 기반, 사용자 중심의 산불 예측 및 감시 체계 구축
		공공조달에서의 공정한 경쟁의 장 마련: 한국의 온라인 조달시스템, 1996 - 2002
요약 보고서		참여형 지도제작: 지리공간데이터의 가용성, 접근성, 유용성을 높인 서울의 여정, 2007 - 2018
		공공재로서의 데이터: 서울의 오픈 데이터 플랫폼 구축, 2011 - 2016
		공공서비스의 투명성과 품질 강화: 대한민국의 오픈 데이터 정책
		스마트 교통카드 (티머니): 서울 시민의 이동성 개선을 위한 대중교통 시스템 통합 1996 - 2004
		한국의 스마트한 산불관리: 데이터 기반, 사용자 중심의 산불 예측 및 감시 체계 구축
		공공조달에서의 공정한 경쟁의 장 마련: 한국의 온라인 조달시스템, 1996 - 2002
		대한민국의 전자상거래 장려정책 이행, 1994 - 2015

## 교육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혁신적이고 기술이 발전한 국가 중 하나로 빠르게 도약할 수 있던 동력은 교육이었습니다. 교육국(Education GP)은 한국 정부와 협력하여 한국의 개발 경험과 세계은행의 관련 글로벌 지식을 모아 개도국을 지원해 왔습니다. 한국에서 교육국의 활동은 인적자원개발(HRD), 기술직업교육훈련(TVET), 과학기술혁신(STI)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왔습니다. 교육국은 앞으로도 디지털개발국과 협력하여 디지털 역량개발을 위한 활동을 확대할 것이며, 프로그램 자문 및 분석(PASA)을 이행하여 교육과 역량 개발을 통해 동아태 지역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2020 아세안+3 인적자원개발포럼 - 코로나19 와 그 이후의 역량 개발과 고용: 개혁과 기술 (2020년 11월 17-18일)

2020년 11월 17-18일, 한국-세계은행 협력기금(KWPF)은 한국 고용노동부(MOEL), 한국산업인력공단(HRD Korea)과 함께 2020 아세안+3 인적자원개발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코로나19가 계속됨에 따라, 포럼은 온라인과 현장(주 개최장소 서울)에서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역량개발과 고용정책에 대한 지식공유를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1) 역량 훈련 지속을 위한 혁신적 방법, (2) 코로나19 이후 포용력 있고 탄력적인 회복을 뒷받침하는 고용서비스를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150명이 넘는 참석자들이 글로벌한 지식과 각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의 도전과제와 효과적인 정책 대응에 대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이번 포럼은 아시아 지역의 자신감을 보여주었고, 팬데믹을 극복하고 역량 제공, 고용, 사회경제적 개발을 재개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였습니다.



## 범분야 지원



### 동아태 지역 역량 웹 세미나 - 직장에서의 기술 사용: 직원 역량 개발과 스마트 워크 (2020년 7월 8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긴밀한 지원을 바탕으로, 동아태 지역 교육팀은 이번 회계연도에 교육기술(EdTech)과 국가의 역량 개발 진단에 대한 웹 세미나 시리즈를 개최하였습니다. 2020년 7월 8일에 진행된 “직장에서의 기술 사용: 직원 역량 개발과 스마트 워크” 웹 세미나에서는 기업들이 기술을 활용해 직원을 교육하고 적절한 문화, 도구, 과정을 제공하는 방법이 소개되었습니다. 8개 동아태 국가의 약 80명의 참가자들은 적절한 기술을 통해 어떻게 기업의 전반적인 효율과 성과, 그리고 직원의 생산성, 의사소통, 협업,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지를 모색했습니다.

### EAP 역량 웹 세미나 - TVET 감독과 평가: 교육 결과 개선- 인력개발을 위한 체계적 접근법 (SABER-WfD) - 한국과 통가 연구 (2021년 2월 3일)

본 웹 세미나는 표준화된 SABER-WfD 도구를 이용, 한국과 통가의 인력개발 현황을 분석, 평가하는 방법을 소개하였습니다. SABER-WfD 연구는 국가 또는 지역의 정책과 전략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직업훈련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적 차원의 정책 이행을 분석합니다. 이번 웹 세미나는 동아태 지역의 SABER-WfD 연구가 최초로 발표, 협의된 자리로, 11개 동아태국 120명의 참석자들과 전문가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TVET 평가의 어려움, 그리고 TVET 개혁과 품질, 평생학습, 직장훈련에 대한 정책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동아태 지역 교육국은 SABER 연구와 웹 세미나가 TVET 정책에 대한 독특한 관점을 제공하고 훈련 제공기관들의 장단점을 분석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설계에 지속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 여깁니다.

### 아프리카 과학기술 파트너십 (PASET)의 아프리카 지역 장학 · 혁신 기금(RSIF) 구상

아프리카 정부들은 세계은행의 지원을 받아 2013년 아프리카 과학기술 파트너십(PASET)을 출범시켰습니다. 응용과학, 공학, 기술 역량(ASET)을 중심으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SSA)의 숙련인력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아프리카 지역 장학 · 혁신 기금(RSIF)은 PASET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아프리카 출신 박사 후보생들이 해외 대학

수학을 포함하는 “샌드위치” 훈련을 통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유명 대학들과 최고 수준의 국제 파트너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장학금을 제공합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PASET의 긴밀한 파트너였으며 파트너십은 시간이 지날수록 강화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2018년 1천만 달러를 RSIF에 지원하기로 약속했으며, 한국의 5개 파트너 기관들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대학들과 샌드위치 교육을 통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 한국에 온 1그룹 RSIF 장학생

2019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샌드위치 훈련을 시작한 6명의 장학생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학문적인 성과를 보이며 학업 의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계연도의 중요한 업적들은 자신의 기술, 이론적 능력을 활용할겠다는 장학생들의 의지와 연구 성과의 전반적인 개선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장학생들은 2022년 2월에 KIST에서의 연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 2그룹 RSIF 장학생과 한국 파트너 기관 매칭

학생들을 샌드위치 훈련에 배치하기로 한 한국 파트너 기관들과 아프리카 대학들의 협약은 올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한국 기관들과 매치된 장학생 총 14명은 2022년에 한국에서 연구 활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삼성꿈장학재단은 2 그룹 장학생 중 일부를 위한 장학금을 계속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KIST에서 연구 중인 RSIF 장학생들 (사진: icipe)

## 범분야 지원

### 취약·분쟁·폭력

FCV 국은 포괄적 테마로 세계은행그룹 모든 부문에 걸친 취약, 분쟁, 폭력(FCV) 관련 다양하고 다면적인 개발 과제들에 대해 실질적인 사고와 분석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2020-2025 WBG FCV 전략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FCV국은 세계은행그룹이 FCV 국가들의 문제에 효과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여러 CMU와 전문분야국에 운영 및 분석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에 더해, FCV국은 FCV 상황을 위한 혁신적 금융 상품의 설계와 사업화를 지원하기도 하고, 국가형성 및 평화구축기금(SPF)과 취약국을 위한 경제·평화 구축 신탁기금(KTF) 등의 신탁기금을 관리하기도 합니다.

FCV국의 아시아태평양팀의 일원인 세계은행그룹 한국사무소 FCV 직원들은 FCV국의 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며 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핵심 산출물은 (1) 아태지역을 중심으로, 세계은행의 FCV 상황 전략과 FCV 환경에서의 사업 활동 강화를 위한 분석 연구 및 국가 지원, (2) 글로벌 위기 위험 플랫폼(Global Crisis Risk Platform, GCRP)의 핵심 요소인 기근 행동 메커니즘(Famine Action Mechanism, FAM)과 분쟁위험 모니터링 (Conflict Risk Monitoring) 등 위기 위험 관리 이니셔티브의 사업화 지원, (3) FCV 상황에 대한 혁신적 참여 촉진 등을 포함합니다.

한국사무소 FCV 직원들은 관계 구축, 파트너십 구축, 프로젝트 지원, 지식 공유를 통해 FCV 이슈에 관심 있는 세계은행 팀들을 한국 개발 파트너 및 이해관계자들과 연결해 주기도 합니다. 또 워싱턴 DC의 FCV국에 속한 SPF/KTF 관리자가 이끄는 KTF 사무국과 한국 개발 파트너들 간의 소통을 위한 연락 사무소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FCV팀이 2020회계연도에 한국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진행한 주요 활동, 그리고 운영 및 분석지원의 형태로 동아태 및 기타 아시아 국가들에 제공한 FCV활동에 대한 간략한 소개입니다.

### 농업에서의 혁신 기술에 관한 한국 이해관계자와의 지식 생산 및 교류

KTF가 지원하는 “아프리카 분쟁·취약 국가에 적용할 수 있는 물 절약, 기후 스마트 프리티어 농업”은 FCV 상황에서 식량 안보와 영양이 있는 식량 생산을 증대할 수 있는 농업 부문의 기술적 해법을 활용하는 프로젝트입니다. 2019년 방한 이후 한국의 농촌진흥청(RDA)과의 파트너십이 더 강화되어, 곧 발간될 WBG의 출판물(2021년 12월 예정)은 농진청 전문가들의 곤충 사육에 대한 분석을 활용, 한국의 곤충 사육 정책과 관행을 조명합니다. “한국 곤충산업육성 정책 및 계획”이라는 연구보고서(2020년 6월 농촌진흥청 발간)가 관련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KTF 사무국은 농진청의 곤충 사육 활동에 대한 웹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공동분석 활동을 통해 맺어진 이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세계은행과 농진청은 남수단 농민들을 교육하는 시범사업을 함께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세계은행과 농진청의 협업은 언론의 많은 관심을 받았으며, 한국의 유수 경제신문 [기사](#)에서 다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 중진국의 FCV 문제 대응에 대한 한국의 전문성

“중진국에서의 FCV 접근법 개발” 프로젝트의 품질 보장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이 발족되었습니다. 이 자문단은 세계은행 전문가, 그리고 서울대학교,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호주 외교통상부, 영국 국제개발부, 인도네시아 국립과학원, 콜롬비아 로스 안데스 대학교, 카네기 중동센터 등 학계, 정책기관, 공여기관을 대표하는 외부 인사들로 구성됩니다. 자문단은 주요 정량분석연구와 국가 사례연구를 검토하여 최종 보고서가 최신 글로벌 연구결과와 정책 관련 인사이트를 담고 있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국제개발협력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권혁주 서울대학교 교수가 자문단의 일원으로 참여합니다.

## 한국 이해관계자와 세계은행의 FCV 및 글로벌개발 전문성 공유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한국사무소의 FCV 담당 직원들은 세계은행그룹의 접근방식과 우선순위를 분쟁취약국에 공유하기 위한 여러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이러한 대외활동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한국의 차세대 개발 전문가를 양성(STEP-UP이2020년 12월 5일 주최)하고 한국의 세계시민 교육 커리큘럼에 글로벌 공적개발원조(ODA)의 추세를 반영(경북대학교가 2021년 4월 주최)하기 위해 재정 지원하는 일련의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또한 한국사무소의 FCV국은 한국의 주요 ODA 이해관계자들에게 FCV전문지식을 제공하여 한국의 ODA활동에서 FCV의 우선순위를 강화하는 이들의 의지를 다지고자 노력했습니다. FCV국은 2020년 9월 세계은행그룹의 FCV 전략 중 한국 편(Korean Summary)을 발간하여 FCV에 대한 세계은행그룹의 접근법을 한국에 더 널리 알리고, 주요 ODA 이해관계자들 간 FCV 문제에 대한 정책 대화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한국사무소의 FCV국은 세계은행그룹이 한국 정부와 FCV 문제에 관한 협업 10주년을 기념하여 작성된 KTF 사무국의 [블로그](#)에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2021년 2월 9일, 한국사무소의 FCV 담당 직원들은 서울대학교 아시아개발연구소와 국립외교원이 개최한 취약국 전략 심포지엄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부터 KOICA의 SDG16(평화와 거버넌스) 전문가 자문단으로 활동해 온 FCV 직원들은 KOICA에 제출된 인도주의 및 평화구축에 관한 프로젝트 제안서들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이번 회계연도에 FCV 직원들은 20건의 프로젝트 제안서를 함께 검토하고, 이 제안서들을 논의하기 위해 2020년 11월 26일 회의를 포함한 여러 화상 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 아태지역의 세계은행 활동에 대한 FCV 운영 및 분석 지원

2020년 세계은행 FCV 전략 출범과 함께, 한국사무소의 FCV국은 솔로몬 제도, 파푸아 뉴기니, 네팔 등 아태지역 국가에서의 세계은행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한국사무소의 FCV국은 프로젝트 지원의 일환으로 KTF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세계은행 프로젝트를 발굴, 프로젝트팀과 KTF 사무국의 의사소통을 촉진, 관련

## 범분야 지원

프로젝트팀장들을 지원합니다. KTF가 재정 지원한 프로젝트 중 하나는 파푸아 뉴기니아와 솔로몬 제도에서 빠르게 진화하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 휴대폰을 통한 고주파 전화 설문조사 데이터를 수집하는 프로젝트입니다. 2020년 12월과 2021년 1월에 진행된 1차 설문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세계은행그룹과 유니세프 공동 집필)가 2021년 6월에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더해, 한국사무소의 FCV 담당 직원들은 동아태 IDA-FCS 국가의 프로젝트팀을 위해 위험 및 회복력 평가 개발을 주도하고 FCV관련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사무소의 FCV국은 모니터링 및 감독을 위한 공간 분석 기술 활용 이니셔티브(GEMS) 팀과 긴밀히 공조하여 동아태 지역 개도국들이 디지털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통해 실시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저비용 오픈소스 기술과 단순한 방법을 활용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난 회계연도 내내 동아태 국가들로부터 GEMS에 대한 수요가 많이 있었습니다.

# 한국 민간부문의 포스트 코로나 지속가능투자기회 지원

국제금융공사(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국제투자보증기구(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 국제금융공사

국제금융공사(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IFC)는 개도국에 대한 투자 기회 발굴, 지원을 통해 한국의 민간부문 참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IFC 한국사무소는 인도네시아의 MSME(초소형 기업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5천만 달러의 신규 거래를 성사시키고, 2021 회계연도에 인도네시아의 물 공급 프로젝트를 위한 위임장에 서명하였습니다.

IFC 한국사무소는 한국 기업 및 금융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해 왔습니다. IFC 한국사무소는 2021 회계연도에 지원대상 개도국을 확대하여 캄보디아, 인도, 인도네시아, 키르기스스탄, 네팔,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등의 국가에서 추진 중인 프로젝트에 대하여 한국 원조 기관들과 논의해 왔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신흥국 진출 사업 기회를 선제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화상 회의들을 주최하기도 했습니다.

IFC는 기관 차원에서 세계은행그룹의 “구호, 재건, 굳건한 회복”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강력한 코로나19 대응을 이행하였고, 개도국들이 코로나 위기로 인한 직접적인 타격을 견딜 수 있도록 돕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IFC는 80억 달러 규모의 패스트트랙 자금을 신속하게 조성해 개도국들이 기업과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40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보건플랫폼(Global Health Platform)도 구축하였습니다.

2021 회계연도에 IFC는 장기 자금지원 233억 달러, 단기 자금지원 82억 달러를 포함, 사상 최고액인 315억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IFC는 기후 프로젝트에 40억 달러를 배정하는 기록을 세웠는데, 이는 IFC 자체 자금의 32%로, 목표치인 30%를 상회하였습니다.

IFC는 앞으로 친환경적이고 회복력, 포용력 있는 회복을 주도할 것이며, 세계은행그룹의 새로운 기후변화 행동계획 하에서 기후 저감 및 완화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IFC는 2025년까지 파리협정의 내용을 100% 준수하기로 공약한 만큼, IFC 한국사무소는 같은 비전을 공유하는 한국 원조 기관들과 협조하여 IFC의 사명을 계속해서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 인프라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제약과 제한에도 불구하고 IFC는 계속해서 한국 원조 기관들과 프로젝트 개발 초기부터 공조하며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 회계연도에 IFC는 긴 개발 기간과 복잡성 등 신흥국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국수자원공사(K-water)와 인도네시아의 물 공급 인프라 프로젝트를 실시하기로 협약하였습니다.

#### 인도네시아 카리안(Karian) 정수처리장 프로젝트

- 인도네시아의 임의 민간협력(PPP) 제도 하에서 수자원공사와 인도네시아 건설사 PT Adhi Karya Tbk (Adhi)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카리안-세르퐁 지역 물 공급 민간협력 프로젝트를 개발했습니다.

- 이 프로젝트는 특히 인구 증가율이 높은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와 주변 도심지역(탕에랑과 사우스 탕에랑 시)의 안전한 식수 접근성 증대를 목적으로 합니다.
- 이 프로젝트는 약 3조 IDR(인도네시아 루피아) (약 2억3백만 달러) 규모입니다. 1억4천3백만 달러 규모의 채권 금융 내에서 IFC는 최대 5천만 달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이 프로젝트는 지역 수도업체에 일간 400,000 m3의 지표수를 추가로 제공함으로써 물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 서부 자카르타 지역의 심각한 물 부족 상황을 완화하고 지하수 취수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 금융기관

IFC 한국사무소는 한국의 금융기관들과 함께 동남아 시장 기회에 대한 이들의 관심과 모집 기회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합니다. 2021 회계연도에는 다음의 거래를 조성, 성사시켰습니다.

### 인도네시아, KB 파이낸시아 멀티 파이낸스

- IFC는 인도네시아 복합금융계의 주요 기업이자, 한국 최대의 여신전문금융사 중 하나인 KB국민카드가 인수한 KB파이낸시아 멀티 파이낸스(KBFMF) 유한책임회사(PT, 외국인투자유한회사)에 5천만 달러의 대출을 실행하였습니다. KBFMF는 이 대출을 활용하여 장기 IDR(인도네시아 루피아) 자금을 조달하고, 자금 기반을 다각화하며, 재무 상태를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KBFMF는 인도네시아 고용의 89%를 차지하는 초소형 기업 및 중소기업(MSME)에 대출을 지속함으로써 인도네시아의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입니다.
- 본 투자는 세계은행그룹 위기대응목표에 맞게 코로나19의 영향 완화를 목표로 합니다. 이번 팬데믹으로 초소형기업과 중소기업들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들이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인도네시아에서 이는 더욱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이 기업들의 90% 이상이 비공식 부문에 속하며 국내 시장 서비스 수요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대부분 초소형, 소형으로 분류되는 이러한 기업들은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것이 성장의 걸림돌이라고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으며, 하루하루 운영을 계속하기 위한 자본도 부족합니다. 따라서 이들은 이번 팬데믹으로 인한 수요 충격에서 쉽게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FMF 거래 이후 IFC는 추가 대출 실행을 계획하고 있으며, 2022 회계연도에 현실화될 전망입니다.

## 국제금융공사

### 제조 · 농업 · 서비스 산업(MAS)

2021 회계연도는 IFC의 제조, 농업, 서비스(MAS) 활동에서 대단히 성공적인 해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 프로그램은 MAS 부문이 올해 기록을 경신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IFC의 동아태 지역 신규 장기금융은 2018 회계연도 51억 달러, 2020 회계연도 47억 달러에서 2021 회계연도에는 59억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위임에서 조성까지 걸리는 기간을 줄인 더 효율적인 프로세스가 프로젝트 성사 건수를 높이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보건 및 교육(H&E) 부문은 올해 18억 달러 이상으로 기록을 세웠고, 이 중 62%가 글로벌보건플랫폼을 통하여 조성되었습니다. 관광, 소매, 부동산(TRP) 부문은 거의 12억 달러에 달하는 장기금융을, 농림업 부문은 16억 달러 이상을, 제조업 부문은 12억 달러를 성사시켰습니다.

세계은행그룹의 코로나19 대응 일환으로, IFC는 개도국들이 직면한 심각한 의료공급 격차를 줄이기 위해 민간 투자 동원을 목적으로 하는 40억 달러 규모의 금융기금인 글로벌보건플랫폼(GHP)을 2021 회계연도에 출범시켰습니다. IFC한국사무소는 2021 회계연도에 IFC의 MAS 팀과 긴밀한 협조 하에 보건 분야 중심의 사업 개발을 착수하였습니다.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투자를 바탕으로 한 2022 회계연도의 주요 사업개발 분야 중 하나인 MAS의 보건 분야에 개도국들이 새로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IFC 한국사무소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와 함께 키르기스 국립 의대 계열의 300개 병상급 병원을 개발하는 그린필드 사업인 “KSMA 병원” 프로젝트를 위한 공동개발협약(JDA)을 체결하였습니다. IFC 한국사무소는 IFC의 MAS 팀, 한국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원활한 프로젝트 개발을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 KSMA 병원 프로젝트 개요

- 본 프로젝트는 키르기스스탄 보건부, KSMA와의 민관협력을 통해 구축-운영-이전 모델로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에 300병상 규모의 대학 부설 종합병원을 새로 개발, 건립, 운영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병원이 건립되면 가장 흔한 질병과 사망원인을 중심으로, 키르기즈 공화국의 의료 서비스의 질과 보급률을 개선하게 될 전망입니다. 병원은 또한 의대 졸업생들을 최고의 의료를 제공하는 전문가로 양성하는 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 프로젝트 회사는 3년의 건설 기간 후 양허 하에 20년 동안 병원을 운영하며, KSMA로부터 30년 동안 부지를 임차하게 됩니다. 새로 건립되는 병원은 단계별 운영을 시작하여, 운영 시작일로부터 3년 내에 전면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 대외 활동 및 파트너십

IFC 한국사무소는 IFC의 활동을 홍보하고 한국 기업들에게 IFC의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여러 세미나와 행사들을 하이브리드 형태로 주최하거나 참여해 왔습니다. 이러한 대외 활동을 통해 IFC는 풍부한 투자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수 있었고, 언론의 관심도 받았습니다. IFC는 2022 회계연도에 팀의 활동과 역량을 더 효과적으로 알려 한국 기업 및 금융기관과의 관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2021 회계연도 IFC의 개도국 지원 활동



한국 내 코로나19로 인한 거리 두기와 기타 제약 강화에도 불구하고, IFC 한국사무소는 2021 회계연도에 금융기관그룹 (FIG) 고객들과 더 많은 활동을 펼쳤습니다. 2021 회계연도의 KB-FMF 거래 성사는 한국 금융기관과의 신규 사업기회 모색 또는 창출에 모멘텀이 되었습니다.

###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회복을 위한 한국수출입은행과의 파트너십 강화 (2020년 9월 25일)



IFC와 한국수출입은행은 개도국에서의 협업을 확대하고 한국 기업에 더 많은 해외 진출 기회를 소개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했습니다. 2008년부터 IFC와 한국수출입은행은 개도국에서 총 112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여러 인프라 프로젝트를 함께 지원해 왔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양자는 한국의 신남방, 신북방 정책에 걸맞게 동남아, 중앙아시아를 비롯한 신흥국의 프로젝트들을 함께 발굴, 재정 지원할 계획입니다.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인프라 투자 기회 (2020년 10월 7일)

IFC 한국사무소는 2020년 10월, 신흥시장 인프라 산업에 대한 화상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100명이 넘는 한국 인프라 업계 임직원들이 IFC가 주최한 웹 세미나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기회에 대한 귀중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워크숍 참석자들은 민관협력 프로젝트 관리와 인프라 프로젝트의 환경적, 사회적 위험에 대한 실질적 교훈을 얻기도 했습니다. 이번 온라인 행사는 한국 정부와 기업을 지원하여



민간부문의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개도국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IFC의 노력 중 하나입니다. 한국과 전 세계의 전문가들은 각각 한국의 신남방 정책과 신북방 정책에 따라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동남아와 중앙아시아 지역 개도국 인프라 사업의 다양한 도전과 기회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 KB 금융그룹과의 MOU 체결식 (2020년 12월 9일)



12월 9일, 서울에서 접속한 윤종규 KB 금융지주 (KBFG) 회장과 싱가포르에서 접속한 알폰소 가르시아 모라 IFC 아시아태평양 부총재가 화상으로 MOU 체결식을 가졌습니다. KBFG와 IFC는 금융 포용 의제에 기여하기 위해 신흥국의 새로운 프로젝트 기회를 발굴, 모색할 예정입니다.

KBFG는 신흥시장에서 가장 활발한 한국 기업 중 하나입니다. 2020년 11월 말경 체결된 IFC와 KB카드/FMF(파이낸시아 멀티 파이낸스에 대한 5천만 달러 대출) 약정에 더해, IFC와 KBFG는 아래 상세히 기술된 프로젝트 기회를 연달아 계획하고 있습니다. KBFG와의 MOU는 IFC와 KBFG의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할 것입니다. 이번 MOU는 KBFG와의 추가 협업 모멘텀을 제공하여, IFC가 특히 적절한 가격의 주택 및 공급망 금융 등 중요한 전략 분야를 중심으로 KBFG 같은 강력한 원조 기관과 함께 아시아 신흥시장에서 새로운 투자서비스 및 자문 서비스 기회를 모색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 신흥시장에서의 지속가능 투자 확대 (2021년 5월 18일)

본 행사에는 40개 이상 한국 기관장들이 참여하여 수소와 e-모빌리티의 선도적이며 지속가능한 활동들을 소개하고, IFC의 혁신적 금융 상품 또한 소개되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한국 정부와 기업의 신흥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IFC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알폰소 가르시아 모라 IFC 아시아태평양 부총재가 개회사를 하였고, IFC 임직원들은 기후 사업기회에 대한 IFC의 경험과 인사이트를 나누었습니다.



윤태식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한국 정부를 대표해 축사를 하였고, 한국 정부는 “그린 뉴딜” 하에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ESG) 전문가, 금융계, 수소 업계를 포함, 지속가능성과 관계된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여러 분야와 기관을 아우르는 이해관계자들이 화상으로 행사에 참여해,

많은 한국 투자자들의 근본적 기준이 된 ESG관점에서 본 지속가능 투자의 최전선에 있는 문제들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표 9. IFC 한국사무소의 대외 지원 및 참여 활동

행사명	주최/주관	설명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2020년 7월)	IFC	2020년 7월 7일, IFC,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D-camp 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에 대한 웹 세미나 공동 개최. 다양한 스타트업과 벤처캐피털 기업들이 참여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시국에서의 도전과 기회를 논의.
임팩트 투자 (2020년 9월)	아시아재단	2020년 9월 9일 IFB서울이 초청한 참여자 대상의 첫 세션이 금융권의 장점을 강화하고 단점을 보완하여 한국과 아시아에서의 임팩트 증대 방법을 주제로 진행. 류지연 IFC한국사무소 대표는 임팩트 관리 운영원칙을 참가자들과 논의.
포스트코로나 시대 인프라 투자의 기회 (2020년 10월)	IFC	IFC는 한국 인프라 개발업체와 투자자를 대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기회 발굴을 모색하는 화상 워크숍 개최. IFC직원들은 동남아와 중앙아시아 민관협력(PPP) 프로젝트의 장점과 어려움을 소개하고 PPP 프로젝트의 수익성 향상을 위한 IFC의 역할을 강조.

## 국제금융공사

행사명	주최/주관	설명
ESG 관리와 임팩트 투자 (2020년 10월)	서울금융포럼	10월 13일에 열린 조찬세미나에서 신진영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강연. 신진영 교수는 “ESG관리와 투자: 최근 동향과 이슈”를 주제로 발표. IFC는 위험 평가와 관리 도구로서의 ESG접근법 공유.
글로벌 인프라 투자 (2020년 10월)	한국토지주택공사	IFC한국사무소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대상으로 IFC의 신흥시장 사업모델 및 전략 발표.
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 2020 (2020년 12월)	해외건설협회	국토교통부는 12월 7-8일 한국의 해외건설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 2020(GICC 2020)을 개최. IFC 한국사무소는 IFC의 신흥시장 사업에 대해 발표.
베트남의 외국인직접투자 기회와 걸림돌: 한국 기업의 사례 (2020년 12월)	IFC	IFC 한국사무소는 베트남에서 운영 중인 한국 원조 기관의 새로운 업스트림, 메인스트림 기회를 발굴하기 위해 베트남 컨설팅 업체 Fiingroup과 독립, 맞춤형 시장 연구를 수행. IFC한국사무소와 Fiingroup은 주요 연구결과를 IFC의 여러 팀에 발표.
2020 글로벌 혁신성장포럼 (2020년 12월)	기획재정부, 세계은행그룹 한국사무소	2019년에 시작된 글로벌혁신성장포럼(GIGF)은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글로벌 리더들이 협력하는 포럼. 세계은행 한국사무소는 한국 기획재정부와 2020 GIGF를 서울에서 화상회의 형태로 공동 주최. 비벡 파탁 IFC 기후비즈니스부장(Vivek Pathak, Director for Climate Business department of IFC)이 패널 토의에 참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 ASEAN 연결성 강화를 위한 한-ASEAN 파트너십 (2021년 1월)	한-아세안 센터	1월 19일, 한-아세안 센터는 ASEAN 10개 회원국의 코로나 19 회복을 지원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지속가능 인프라와 디지털 혁신을 주제로 온라인 포럼을 주최. 류지연 IFC 한국사무소 대표는 패널토의에 참여해 IFC의 신흥시장 전략을 공유.
신흥시장에서의 지속가능 투자 (2021년 5월)	IFC	“신흥시장에서의 지속가능 투자 확대” 행사에는 40개 이상 한국 기관의 리더들이 참여하여 수소와 e-모빌리티의 선도적이고 지속가능한 활동들을 소개하고, IFC의 혁신적 금융 상품인 청색금융도 소개됨. 이번 워크숍은 한국 정부와 기업의 신흥시장에서의 민간부문 솔루션 확대를 돕기 위한 IFC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임.
지속가능한 인프라 개발 (2021년 6월)	한국수자원공사	류지연 IFC 한국사무소 대표는 수자원공사 직원들에게 IFC의 사업모델과 전략 발표.
중남미 인프라 개발 (2021년 6월)	국토교통부, 한국해외인프라 도시개발지원공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와 국토교통부가 공동 주최한 행사에 해외 인프라 사업의 실무자들이 참여. 류지연 IFC 한국사무소 대표는 패널 토의에 참여하여 중남미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기업들의 도전과 기회에 대한 IFC의 의견을 공유.

참고: IFC = (국제금융공사)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KIND =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orea Overseas Infrastructure and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 MOEF (기획재정부)=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MOLIT = (국토교통부)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ation; WBG = (세계은행그룹)World Bank Group.

##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한국사무소 국제투자보증기구(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MIGA)팀은 신흥시장 투자에 대해 보증을 제공해 투자 위험을 줄이고 신용 조건을 개선함으로써 한국의 신흥시장 투자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MIGA 한국사무소는 한국 기업들이 참여하는 프로젝트에 관해 워싱턴 본사 거래팀(deal team)과 긴밀히 협업합니다. MIGA는 한국기업들의 해외 프로젝트에 현재까지 총 5억1천8백만 달러 규모의 보증을 제공했습니다. MIGA 한국사무소는 2021 회계연도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미얀마의 한-미얀마 산업단지(KMIC) 프로젝트를 성사시켰습니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MIGA는 기후변화, 인프라, 에너지, 제조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추가 프로젝트 발굴을 위해 화상 회의를 주최하며 여러 투자자들과 프로젝트의 파이프라인을 계속해서 개발해 왔습니다. 2021 회계연도에 MIGA는 코로나19로 촉발된 경기침체 이후 해외 투자 재개를 모색하는 한국 기업들에게 지침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여러 컨퍼런스, 세미나, 워크숍에 참여하고 발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경주했습니다.

### 주요 프로젝트

#### 한-미얀마 산업단지, 미얀마 (570만 달러)



##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2020년 10월 25일, MIGA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한-미얀마 산업단지개발회사(KDC)에 대한 지분투자에 570만 달러 규모의 보증을 최대 15년 동안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본 보증은 환전 불가능 위험, 자금 이체 제한, 전쟁, 민간소요, 계약위반 위험으로부터 LH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MIGA는 IDA(국제개발협회) 민간지원창구 산하의 MIGA 보증기금을 활용하여 노출 위험을 공유합니다. 본 프로젝트는 양곤 국제공항에서 북쪽으로 25km 떨어진 야웅니핀(Nyaung Hnit Pin)에 소재한 한-미얀마 산업단지 1기에 해당하는 Zone A의 개발, 자금조달, 건설, 운영으로 구성됩니다. 본 프로젝트는 LH와 글로벌세아의 합작투자회사인 KDC, 미얀마 정부가 함께 개발합니다.

운영이 시작되면 본 프로젝트는 적절한 인프라가 갖춰진 산업단지를 제공함으로써 미얀마의 경제 성장과 산업 발전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업들은 이러한 산업단지가 없어 미얀마에서 생산설비를 갖추고 사업을 확장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민간투자를 추가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부의 세수를 늘리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산업단지에는 최대 200개 기업이 입주할 수 있으며, 업체와 협력사의 고용 창출이라는 간접 효과로 인해 그 경제적 영향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 대외활동 및 파트너십

### 마타노 히로시 MIGA 부총재화상 방한 (2020년 10월 20-22일)



마타노 히로시(Hiroshi Matano) MIGA 부총재(Executive Vice President)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현대엔지니어링을 만나기 위해 2020년 10월 화상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한의 목적은 한국 파트너들과의

파트너십을 발전시키고 개도국에서의 투자 기회를 논의하는 것이었습니다. 마타노 부총재는 방한 기간 중 기획재정부와의 연례 화상회의에 참여하여 한국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과 한국 기업의 개도국 진출 프로젝트 협력에 대한 MIGA의 깊은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 제6차 MIGA 연례 젠더 리더십 시상식 (2021년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MIGA는 “회복력 있는 아시아를 위한 금융권 여성”이라는 제목으로 제6차 연례 젠더 리더십 시상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선정위원회는 오드라 로우 클리포드 캐피탈 대표(Audra Low, CEO & Executive Director at Clifford Capital)를 올해의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이 상은 여성의 발전과 양성평등을 진전시키고 세계은행그룹의 두

가지 목표인 빈곤 감축과 공동의 번영에 기여한 리더에게 수여됩니다.

MIGA 한국사무소는 이번 행사에서 한국수출입은행 김경자 중소기업금융본부장을 화상으로 발표자로 초대했습니다. 김경자 본부장은 세계 여성의 날을 축하하고 젊은 여성 지도자들이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도록 독려한 한국수출입은행의 노력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 MIGA 한국사무소의 한국 투자자에 대한 홍보 활동 (2021 회계연도)



##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의 경기침체는 2021 회계연도 내내 한국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 활동을 위축시켰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MIGA 한국사무소는 한국 민간부문 투자자들에게 개도국 투자 부문에서의 MIGA의 역할을 알림으로써, 한국 기업들이 MIGA의 보증을 기반으로 개도국에서의 투자활동 재개를 고려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표 10. MIGA 한국사무소의 대외 지원 및 참여 활동**

행사명	주최/주관	설명
2020 MDB 프로젝트 플라자	KOTRA	코로나19가 개도국에 미친 영향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세계은행그룹의 대응 전략 발표
MDB 파이낸싱 워크숍	한국전력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신흥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MDB의 자금조달 기제와 MIGA의 지원 가능성 발표
2020 글로벌 인프라협력 컨퍼런스	국토교통부, 해외건설협회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제 상황과 MIGA의 보증 상품, 최근 성사된 한국 투자자의 프로젝트 설명
중남미 인프라 산업으로 가는 길과 MDB와의 협력	국토교통부, 한국해외인프라 도시개발지원공사, 한·중남미 협회	코로나19로 인한 중남미 경제 상황과 MIGA의 보증 상품, 중남미 인프라 프로젝트를 위한 한국 투자자와의 협력 방법 설명

참고: MDB = (다자개발은행)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KOTRA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KEPCO = (한국전력)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MOLIT = (국토교통부)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ICAK = (해외건설협회) International Construction Association of Korea; KIND =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orea Overseas Infrastructure &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 KCLAC = (한·중남미 협회)Korean Council on Latin America & the Caribbean.

## Korea office

37F. Boo Young Songdo Tower 2, 241 Incheon Towerdaero, Yeonsu-gu, Incheon, Korea  
+82-32-713-7000  
webkorea@worldbank.org  
worldbank.org/korea

## Seoul Satellite Office (IFC and MIGA)

Seoul Global Cnter, Seorin-dong 64-1, Jongno-gu, Seoul, Korea  
+82-2-6945-9000  
ifckorea@ifc.org  
ifc.org/korea

Jason Allford | Special Representative (Country Manager)

## COUNTRY MANAGEMENT UNIT

Tae Hoon Kim | Operations Officer  
Kevin Yunil Kim | Operations Analyst  
Min Jae Kang | Executive Assistant  
Bojeong Choi | Team Assistant  
Soyoun Jun | Team Assistant  
Seungeun Jeong | Consultant  
Samran Choi | Administrative Assistant  
Je Hyang Kim | Administrative Assistant  
Hye Lin Kim | Administrative Assistant  
Mi Young Park | Administrative Assistant  
Jin Seong Choi | Administrative Assistant

## DIGITAL DEVELOPMENT

Zaki B. Khoury | Senior Digital Development Specialist  
Jisoo Lee | Consultant

## FCI

Stuart Yikona | Program Manager  
Anwar Aridi | Senior Private Sector Specialist  
Soohyang Lee | Financial Sector Specialist  
Ryo Sun Jang | Consultant

## ITS T&I LAB

Jinhee Park | IT Officer  
Loun Lee | IT Officer

## URL

Gyongshim An | Senior Urban Development Specialist  
Stamatis Kotouzas | Senior Land Administration Specialist  
Bora Ju | Land and Geospatial Analyst

## ENB

Junu Shrestha | Senior Environmental Specialist  
Milen F. Dyoulgerov | Senior Environmental Specialist  
Eunji Shin | Consultant

## EEX

Inchul Hwang | Senior Energy Specialist  
Hyunji Roh | Consultant

## KGTF

Hanul Oh | Operations Analyst  
Yoon Ju Heo | Senior Operations Consultant  
Minkyung Kim | Operations Consultant  
Jie Ae Sohn | Senior Communications Consultant

## KPOK

Jisun Kim | Senior Program Coordinator  
Jung Yoon Heo | Administrative Assistant  
Sun Young Park | Program Assistant  
Hye-Jung Hwang | Consultant

## EDUCATION

Hayeon Kim | Education Consultant

## FCV

Da Woon Chung | Senior Program Officer  
Suhyoon Kang | Operations Officer

## IFC

Jiyeon Janice Ryu | Resident Representative  
Dongkun Lee | Country Officer  
Gimin Kang | Operations Officer  
Changwoo Son | Operations Analyst  
Haejin Allison Chun | Program Assistant

## MIGA

Jaeyoung Jin | Head of Korea  
Hoonhee Park | Consultant



**WORLD BANK GROUP**  
**KOREA OFFICE**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241 부영송도타워 2 37층  
T. +82 (0)32 713 7000 E. webkorea@worldbank.org  
[www.worldbank.org/korea](http://www.worldbank.org/korea)  
[www.worldbank.org](http://www.worldbank.org)